

家計貯蓄増大를 위한 構造的 租稅政策

李 啓 植
權 龍 水

▷ 目 次 ◁

- I. 序 論
- II. 代表家計에 대한 基本模型
- III. 世代重複 「시물레이션」模型의 基本構造
- IV. 租稅政策 「시물레이션」結果
- V. 要約 및 結論

I. 序 論

政府는 최근 발표한 6次5個年(1987~91年) 計劃의 試案에서 1987년부터 純外債가 감소하고 同計劃期間 동안 7%의 지속적인 경제성장

筆者：李啓植—韓國開發研究院 研究委員

權龍水—韓國開發研究院 研究員

* 本研究의 草稿를 읽고 여러 未盡한 부분에 대해서 助言과 批判을 아끼지 않은 郭泰元, 左承喜, 朴元巖博士에게 深甚한 謝意를 표하며, 시간, 능력 등의 제약으로 인해 충분한 修正·補充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에 대해 양해를 구하고자 한다. 또한 마지막 정리작업에 있어서 도움이 컸던 襄浚鎔, 李允榮 研究員과 任贊順 研究助員에게도 깊은 감사의 뜻을 표한다.

1) 이 기간동안 日本과 台灣의 平均家計貯蓄率은 각각 14.0% 및 13.0%로 나타나고 있다.

2) 日本의 경우 1人當 最高 1,400萬円까지의 각종 예금에 대해서 利子所得稅(分離課稅稅率 35%)를 非課稅하

이 유지되기 위해서 현재(1984年) 27.3%인 國民貯蓄率이 31.5%의 높은 수준으로 提高되어야 할 것이라는 總量展望을 제시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國民貯蓄率을 이와 같은 높은 수준으로 끌어 올리기 위해서는 家計·企業·政府 등 모든 경제부문에서 貯蓄増大의 노력이 경주되어야 하겠으나 그중에서도 특히 家計貯蓄의 劃期的인 증대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家計貯蓄率은 지난 14年 동안 (1970~83年) 平均 7.2%로서 특히 日本과 台灣의 절반 정도에 불과한 低調한 수준을 나타내고 있는데¹⁾ 우리나라의 家計貯蓄率이 이들 두 나라에 비해 현저히 낮은 중요한 이유중의 하나로서 台灣과 日本의 경우 家計貯蓄誘因制度가 稅制中心으로 이루어진 반면 우리나라는 家計貯蓄増大를 위한 稅制上的 誘因制度가 매우 미흡한 점을 지적할 수 있다²⁾. 家計貯蓄의 増大가 우리 경제에 있어서 重大한 과제이며 이를 위한 상당수준의 金利引上이 企業部門의 費用上昇要因 등으로 인해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음을 감안할 때 家計貯蓄増大의 政策方向은 결국 다른 나라에 비해 매우 미흡한 稅制上的 誘因制度를 중심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며, 全般的인 稅制改編作業이 진행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전체적인 租稅構造의 改編이 家計貯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體系의인 研究와 分析의 필요성이 매우 절실하다고 하겠다.

이와 같은 필요성에서 출발한 本研究의 주된 목적은 一生週期模型(life-cycle model)³⁾과 우리나라의 賃金 및 人口 등에 대한 實際 및 推計資料를 이용한 租稅政策「시뮬레이션」분석을 통하여 여러 가지 構造의 租稅政策(structural tax policy)이 全體家計部門의 貯蓄率뿐만 아니라 社會厚生 혹은 經濟的效率, 所得分配 및 家計部門의 成長에 미치는 효과를 종합적으로 비교·분석하고자 함에 있다. 本研究

에서의 構造的租稅政策은 利子所得稅, 勤勞所得稅, 消費稅 중 한가지 혹은 두가지 租稅의 稅率을 引下하고 「시뮬레이션」기간인 1983년부터 2002년까지 20년 동안 租稅收入의 現在 價値를 불변하게 하는 수준으로 다른 租稅의 稅率을 引上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構造的租稅政策이 家計貯蓄에 미치는 효과는 크게 相對價格效果와 負擔分布效果의 두가지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⁴⁾. 相對價格效果는 消費稅와 利子所得稅의 調整에 의하여 期間別 消費의 相對價格 혹은 機會費用이 변화하고, 이에 따라 家計貯蓄이 增減하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負擔分布效果는 일반적으로 消費稅의 경우 老年層家計, 勤勞所得稅는 青年層家計, 그리고 利子所得稅는 中年層家計에서 상대적으로 가장 높은 負擔을 안게 되는데⁵⁾ 租稅構造의 調整에 의하여 年齡別 階層의 租稅負擔分布가 상이하게 나타나게 되고 이에 따라 전체적인 家計貯蓄率이 변화하게 됨을 의미하는 것이다.

특히 美國의 경우에는 종래의 많은 연구들에 의해 이른바 「Denison(1958)의 法則」으로 대표되는 바와 같이 租稅政策이 家計貯蓄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主張이 통상적인 見解로 인식되어 왔다. 여기서 Denison의 法則이란, 貯蓄率은 항상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여 租稅制度나 稅後實質資本收益率(real after-tax rate of return to capital)의 변화에 의해서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으로 이와 類似한 결과를 제시하는 研究로서 Wright(1969), Weber(1970), David-Scadding(1974), Howrey-Hymans(1978) 등이 있다. 이와 대조적으로 Boskin(1978)과 Summers(1981) 등은 貯蓄의 利子彈力性(interest elasticity of savings)

고 있고 이들 非課稅貯蓄이 全體個人貯蓄의 59.4% (1983. 3月末)를 점하고 있으며 台灣의 경우는 年36萬 N.T.달러(韓貨 約 720萬圓) 以下の 利子所得에 대해 利子所得稅(分離課稅稅率 20%)를 非課稅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는 財形貯蓄 등 일부 저축에 대해서 利子所得稅 등을 非課稅하고 있으나 이들 非課稅貯蓄이 全體金融貯蓄에서 차지하는 比重(1984年末 현재 12.7%)이 매우 낮아 日本·台灣의 경우에 비해 家計貯蓄에 대한 稅制上的 誘因制度가 부분적으로만 실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관련된 보다 상세한 論議에 대해서는 李啓植(1985A) 참조.

3) 본연구에서 一生週期模型을 이용한 것은 Summers(1981), Auerbach-Kotlikoff(1983), Auerbach-Kotlikoff-Skinner(1983), Evans(1983) 등 構造的租稅政策과 家計貯蓄의 問題를 분석한 거의 모든 연구들이 이 模型을 이용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사람들이 저축하는 세 가지 중요한 動機, 즉 一生週期動機(life-cycle motive), 豫備的(precautionary) 動機, 遺産(bequest) 動機 중에서 宅宅 마련, 자녀교육 및 結婚資金 마련, 老後對備 등의 一生週期動機가 貯蓄의 가장 중요한 目的이라고 답한 家口가 全體 調查家口의 64.4%(1984년 국민은행 「가계금융이용실태조사」)로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우리나라 家計의 貯蓄動機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李啓植(1985A) 참조.

4) 租稅政策과 家計貯蓄에 대한 보다 일반적이고 광범위한 論議에 대해서는 Kotlikoff(1984) 참조.

5) 이와 같은 세가지 租稅의 연령別 負擔分布에 대해서는 本研究의 第Ⅲ章에서 다시 論議하게 될 것이다.

이 0.4 혹은 1.0 이상으로서 利子所得稅의 調整에 의한 利子率의 變化에 의해서 貯蓄이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見解를 제시하고 있다.

이와 같이 서로 相反되는 見解들은 期間別 消費의 相對價格 혹은 機會費用을 결정하는 消費稅率, 인플레이率, 名目利子率 중 利子所得稅에 의한 名目利子率의 變化가 貯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負擔分布效果를 포함하여 租稅政策이 家計貯蓄에 미치는 보다 광범위한 效果를 看過하고 있다고 하겠다. 本研究에서는 租稅構造의 調整에 따라 相對價格을 포함한 家計의 豫算制約이 하등 변화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負擔分布效果에 의해서 家計貯蓄이 큰 폭으로 변화하는 結果가 나타나고 있다.

本研究는 5章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第II章에서는 代表家計(representative household)에 대한 一生週期模型에서 家計의 生涯效用函數 및 豫算制約과 效用極大化問題로부터 유도되는 몇 가지 均衡條件을 고찰하며 第III章에서는 租稅政策「시뮬레이션」模型의 基本假定과 利用資料 및 基準政策(reference policy) 下에서 나타나는 個別 및 全體家計의 構造를 概觀하고자 한다. 이어서 第IV章에서는 租稅政策「시뮬레이션」분석을 통하여 여러가지 構造的租稅政策이 家計貯蓄, 社會厚生 혹은 經濟的效率, 所得分配 및 經濟成長에 미치는 效果를 비교하며, 마지막으로 第V章에서는 本研究의 分析結果를 要約하고자 한다.

6) 一生週期假說에 입각한 「시뮬레이션」模型을 分析하는 대부분의 研究에서 이 形態의 效用函數가 이용되고 있다. 예를 들어 White(1978), Summers(1981), Moore(1981), Auerbach-Kotlikoff(1983), Auerbach-Kotlikoff-Skinner(1983), Evans(1983) 참조.

II. 代表家計에 대한 基本模型

代表的인 1家計에 대하여 완전한 資本市場(perfect capital market), 장래에 대한 완전한 眼目(perfect foresight), 遺產動機(bequest motive)의 缺如 등을 假定한 通常的인 一生週期模型은 다음과 같이 要約된다.

$$\text{目的函數: } \text{Max } u = \phi(c_1, c_2, \dots, c_T) \\ c_1, \dots, c_T$$

$$\text{豫算制約: } F(c_1, c_2, \dots, c_T) = 0$$

여기서 u 는 家計의 生涯效用(lifetime utility) 函數, c_t 는 t 期의 實質消費, T 는 家口主 一生의 마지막 期間을 의미한다. 本章에서는 家計의 生涯效用函數 ϕ 와 生涯豫算制約式 F 를 定式化하고 이와 같은 家計의 效用極大化 問題로부터 誘導되는 몇 가지 均衡條件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1. 家計의 生涯效用函數

本研究에서는 家計의 效用函數로서 다음과 같은 代替彈力性不變(constant elasticity of substitution: CES) 函數를 이용하고자 한다⁶⁾.

$$u = \phi(c_1, c_2, \dots, c_T) \\ = \sum_{t=1}^T (1+\rho)^{-(t-1)} u(c_t), \dots \dots \dots (1)$$

여기서,

$$u(c_t) = \frac{c_t^{1-\gamma}}{1-\gamma} \quad \gamma \neq 1 \text{ 일 경우} \\ = \log c_t \quad \gamma = 1 \text{ 일 경우}$$

이 效用函數의 가장 중요한 特性은 이 函數의 母數 ρ 와 γ 가 各各 效用에 대한 時間選好率

(utility rate of time preference)과 두 期間 消費의 代替彈力性을 나타내고 있는 점에서 찾아볼 수 있다⁷⁾.

특히 이 效用函數가 本研究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은 이 效用函數를 포함하는 同調的(homothetic)인 效用函數의 경우⁸⁾ 인플레이션 및 利子率과 家計貯蓄과의 基本的인 關係가 代替彈力性係數 γ 의 값에 따라 決定된다는 사실이다. γ 의 값에 따른 이들 두 變數와 家計貯蓄과의 關係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⁹⁾.

[命題 1] (인플레이션과 家計貯蓄의 關係)

- 7) 이 두 母數의 의미에 대한 보다 상세한 논의에 대해서는 李啓植(1985B) 參照. 두 期間 消費의 代替彈力性(σ)은 γ 의 逆數로 표시된다. 즉 $\sigma \equiv \frac{\partial \ln(c_i/c_j)}{\partial \ln(\phi_i/\phi_j)} = \frac{1}{\gamma}$ 여기서 $\phi_i/\phi_j (= -dc_i/dc_j)$ 는 i, j 두 期間消費의 限界時間選好率(marginal rate of time preference)을 나타낸다.
- 8) 아래의 命題와 관련된 이 效用函數의 特性은 消費의 資産彈力性(wealth elasticity of consumption)이 1이라는 점이다. 本研究의 效用函數(1)에 대해서는 本章 3節의 消費函數(12)에서 이 特性을 찾아볼 수 있다.
- 9) 두 期間 模型을 이용한 이 命題들의 證明은 李啓植(1985B)의 附錄II 참조.
- 10) 命題 1 및 2에서 두 期間 消費의 代替가 彈力的, 單位彈力的, 非彈力的(즉 $\sigma \geq 1$) 인에 따라 인플레이션 및 利子率의 代替效果(substitution effect)가 所得效果(income effect)보다 작거나 크거나 같거나 작은 결과가 나타난다.
- 11) 이는 다음 節에서 설명되는 豫算制約式 (9)에서 보는 바와 같이 利子率의 변화가 現在價値로 표시한 生涯資産(lifetime wealth)에 미치는 효과로서 利子率이 상승하는 경우 生涯資産이 減少하며 消費가 줄게 됨에 따라 貯蓄이 늘게 되는 현상을 의미한다. 이 효과는 貯蓄의 利子彈力性(interest elasticity of savings)이 통상의 인식(대표적으로 「Denison(1958)의 法則」)과는 대조적으로 1보다 클 수 있다는 결과를 제시한 Summers(1981)의 연구에서 그 중요성이 부각되었다.
- 12) 본연구의 「시뮬레이션」 模型에서와 같이 25~65세의 一生週期를 고려할 때 두 期間 模型의 경우 後半 20년에 해당하는 第2期에 賃金水準이 가장 높은 연령인 45~55세의 中年期가 포함된다.
- 13) 人的資産效果의 중요성은 특히 두 期間 消費의 代替가 非彈力的이거나 單位彈力的인 경우 부각된다. 대부분의 실증분석은 γ 가 1보다 크다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으며(이에 대해서는 본연구의 附錄 참조) $\gamma=1.5$ 의 값을 사용하는 본연구에서 利子所得稅를 인하하는 경우 均衡利子率의 상승에 따라 家計貯蓄이 增加하는 결과가 나타나는 것은 [命題 3]에 요약된 바와 같이 代替

效用函數가 同調的이고 인플레이션이 상승할 때 다음이 성립한다. ① 두 期間 消費의 代替가 彈力的($\gamma < 1$)이면 家計貯蓄은 감소하고 ② 두 期間 消費의 代替가 非彈力的($\gamma > 1$)이면 家計貯蓄은 증가하며 ③ 두 期間 消費의 代替가 單位彈力的($\gamma = 1$)이면 家計貯蓄은 불변한다¹⁰⁾.

[命題 2] (利子率과 家計貯蓄의 關係: 人的資産效果¹¹⁾ 不考慮時)

效用函數가 同調的이고 利子率이 상승할 때 人的資産效果(human wealth effect)를 고려하지 않을 경우 다음이 성립한다. ① 두 期間 消費의 代替가 彈力的(非彈力的)이면 家計貯蓄은 增加(減少)하며 ② 두 期間 消費의 代替가 單位彈力的이면 家計貯蓄은 불변한다.

[命題 3] (利子率과 家計貯蓄의 關係: 人的資産效果 考慮時)

效用函數가 同調的이고 利子率이 상승할 때 人的資産效果를 고려하는 경우 다음이 성립한다. ① 두 期間 消費의 代替가 彈力的이면 家計貯蓄은 증가하고 ② 두 期間 消費의 代替가 非彈力的이면 代替效果와 人的資産效果의 합이 所得效果보다 크거나 작거나 동일함에 따라 家計貯蓄은 增加, 減少, 또는 不變하며 ③ 두 期間 消費의 代替가 單位彈力的이면 家計貯蓄은 增加한다.

가장 단순하고 많이 이용되는 두 期間 一生週期模型에서 1期에 일하고 2期에 은퇴하는 模型體系에서는 利子率이 生涯資産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게 되나 좀더 현실적인 경우로서 2期에도 일부 기간동안에는 일을 하는 경우나¹²⁾ 3期 이상의 多期間模型을 고려할 경우 人的資産效果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된다¹³⁾.

$$p_{T-1}c_{T-1}](1+r) \dots\dots\dots(6)$$

2. 家計의 生涯豫算制約

家口主의 生涯에 對한 豫算制約式은 一生의 마지막 시점에서부터 逆으로 거슬러 올라가면서 살펴보는 것이 보다 적절한 순서가 된다. 아무런 遺産을 남기지 않는다는 假定下에서 生涯의 마지막 기간 T 에 다음이 성립한다.

$$(1+\tau_T^c)p_Tc_T = a_T + (1-\tau_T^l)w_T \equiv z_T \dots(2)$$

여기서 τ_T^c , τ_T^l 는 각각 比例的 消費稅率과 勤勞所得稅率, p_T 는 消費財의 價格, a_T 는 物的資產, w_T 는 勤勞所得, z_T 는 T 期 家計의 總資產을 나타낸다. 한편 T 期의 物的資產 a_T 는 다음과 같다.

$$a_T = a'_T(1+r) = (a'_{T-1} + s_{T-1})(1+r) \dots(3)$$

여기서 a'_T 는 T 期 始發點에 있어서의 物的資產의 元金(principal value), s_{T-1} 은 $(T-1)$ 期에 있어서의 貯蓄額을 나타내며

$$s_{T-1} = (1-\tau_{T-1}^l)w_{T-1} + ra'_{T-1} - (1+\tau_{T-1}^c) \cdot p_{T-1}c_{T-1} \dots\dots\dots(4)$$

$$r = (1-\tau_t^k)r', \quad t=1, 2, \dots, T \dots\dots\dots(5)^{14)}$$

여기서 r , r' 은 각각 稅後 및 稅前의 名目利子率, τ_t^k 는 比例的 利子所得稅率을 나타낸다.

이제 (4)式을 (3)式에 대입하면

$$a_T = [a_{T-1} + (1-\tau_{T-1}^l)w_{T-1} - (1+\tau_{T-1}^c) \cdot$$

다시 (6)式을 (2)式에 대입하면

$$\begin{aligned} (1+\tau_{T-1}^c)p_{T-1}c_{T-1} + \frac{(1+\tau_T^c)}{1+r}p_Tc_T &= a_{T-1} + \\ (1-\tau_{T-1}^l)w_{T-1} + \frac{(1-\tau_T^l)}{1+r}w_T &\equiv a_{T-1} + \\ h_{T-1} &\equiv z_{T-1} \dots\dots\dots(7) \end{aligned}$$

여기서 h_{T-1} 은 人的資產(human wealth 또는 human capital)으로서 $(T-1)$ 期 이후의 稅後 勤勞所得의 現在價値를 의미한다.

한편 (6)式을 $(T-1)$ 期에 대하여 표시하면

$$a_{T-1} = [a_{T-2} + (1-\tau_{T-2}^l)w_{T-2} - (1+\tau_{T-2}^c) \cdot p_{T-2}c_{T-2}](1+r) \dots\dots\dots(8)$$

(8)式을 (7)式에 대입하면

$$\begin{aligned} (1+\tau_{T-2}^c)p_{T-2}c_{T-2} + \frac{(1+\tau_{T-1}^c)}{1+r}p_{T-1}c_{T-1} \\ + \frac{(1+\tau_T^c)}{(1+r)^2}p_Tc_T &= a_{T-2} + (1-\tau_{T-2}^l)w_{T-2} \\ + \frac{(1-\tau_{T-1}^l)}{1+r}w_{T-1} + \frac{(1-\tau_T^l)}{(1+r)^2}w_T &= a_{T-2} + \\ h_{T-2} &\equiv z_{T-2} \end{aligned}$$

이와 같은 과정을 1期까지 계속해서 거슬러 올라가면 다음과 같은 生涯豫算式을 얻게 된다.

$$\begin{aligned} \sum_{i=1}^T (1+r)^{-(i-1)}(1+\tau_i^c)p_i c_i \\ = a_1 + \sum_{i=1}^T (1+r)^{-(i-1)}(1-\tau_i^l)w_i &\equiv z_1 \end{aligned}$$

여기서 다시 $p_1=1$, $p_{i+1}/p_i=1+\pi$, $a_1=0$ 을 가정하면¹⁵⁾

$$\begin{aligned} \sum_{i=1}^T \left(\frac{1+\pi}{1+r}\right)^{i-1}(1+\tau_i^c)c_i \\ = \sum_{i=1}^T (1+r)^{-(i-1)}(1-\tau_i^l)w_i &\equiv z_1 \dots(9) \end{aligned}$$

效果와 人的資產效果의 合이 所得效果를 압도하는 까닭으로 풀이 된다. 한편 人的資產效果를 고려하게 되면 Cobb-Douglas 效用函數와 같이 $r=1$ 일 경우에도 利子率의 상승에 따라 家計貯蓄은 증가하게 된다.

14) 분석의 편의를 위해 利子率 r 은 시간에 따라 변화하지 않는다고 가정한다.

15) 여기서 인플레이션率 π 도 시간에 따라 변화하지 않는다고 가정한다.

3. 均衡條件

家計는 生涯豫算制約 (9)에 대하여 生涯效用函數(1)을 極大化하며 이로부터 다음과 같은 1次條件(first-order condition)이 얻어진다.

$$(1+\rho)^{-(t-1)}c_t^{-\tau} = \lambda \left(\frac{1+\pi}{1+r} \right)^{t-1} (1-\tau_t^c), \quad t=1, 2, \dots, T \quad (10)^{16)}$$

이 均衡條件 (10)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轉換方程式(transition equation)이 유도된다.

$$c_{t+1} = \left[\frac{1}{(1+\rho)} \cdot \frac{1+r'(1-\tau_{t+1}^k)}{(1+\pi)} \cdot \frac{(1+\tau_t^c)}{(1+\tau_{t+1}^c)} \right]^{1/\tau} c_t \equiv \theta_t c_t \dots \dots \dots (11)$$

여기서 θ_t 는 일반적으로 1보다 크다고 가정되며 $\theta_t - 1$ 은 소비의 增加率을 나타낸다. 이 θ_t 값이 1에 가까워질수록 家計消費의 時間經路(time path 또는 time profile)의 기울기가 완만해져서 家計가 可用資源의 많은 부분을 젊은 시기에 소비하게 되며 이에 따라 젊은 시기의 貯蓄率이 낮아지게 됨을 의미한다.

16) 여기서 λ 는 Lagrange 乘數를 나타낸다.
 17) 이는 c_t 의 機會費用이 크게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c_t 의 감소 및 c_{t+1} 의 증가폭이 미미하게 됨을 의미한다.
 18) 이 결과는 소비의 增加率에 의하여 一生週期貯蓄의 양상을 개략적으로 파악한 것이며 특히 利子率과 인플레이率在 貯蓄에 미치는 영향은 前述한 命題 1, 2, 3에서와 같이 所得效果, 代替效果 및 人的資產效果의 크기에 의해서 결정된다.
 19) 실제로 c_t 를 계산함에 있어서는 $c_1 = \Gamma^{-1}z_1$ 과 관계식 (11)이 이용된다. 여기서 (12)식이 의미하는 每期消費와 資產의 比例性(proportionality)은 生涯效用函數의 同調性(homotheticity)에서 연유하며 이로부터 消費의 資產彈力性이 1인 特性이 나타난다.
 20) 이 函數의 誘導 過程에 대해서는 李啓植(1985B)의 附錄② 참조. Ando-Modigliani는 미국의 年間資料를 사용하여 消費函數를 추정한 결과 $\alpha=0.7$, $k=0.06$ 즉 勤勞所得과 物的資產으로부터의 限界消費性向(MPC)이 각각 0.7 및 0.06이라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위의 式(11)에서 이 θ_t 의 값은 效用函數의 母數 γ 와 ρ , 租稅政策變數인 τ_{t+1}^k , τ_t^c , τ_{t+1}^c , 稅前利子率 r' 및 인플레이率 π 에 의해서 결정되며 ρ , γ , τ_{t+1}^k , π 의 값이 커질수록, r' 및 τ_t^c/τ_{t+1}^c 의 값이 작아질수록, θ_t 의 값은 1에 근접해지는데 이들 母數들이 함축하는 바로부터 다음과 같은 推論이 제시될 수 있다.

- (1) 家計가 더 높은 陽의 時間選好를 갖게 될수록
- (2) 두 期間 消費의 代替彈力性이 작을수록¹⁷⁾
- (3) 利子所得稅率이 높을수록
- (4) $(t+1)$ 期에 t 期에 비해 더 높은 消費附加稅(tax surcharge)를 부과할수록
- (5) 稅前均衡利子率이 낮을수록
- (6) 인플레이率이 높을수록

家計消費의 時間經路의 기울기가 완만해지며 젊은 시기의 貯蓄率이 낮아지게 된다¹⁸⁾.

이제까지 살펴본 (11)式은 家計消費의 시간에 따른 變化형태를 결정하는 關係式이며 每期 家計消費의 수준은 (11)式을 生涯豫算制約(9)式에 代入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¹⁹⁾.

$$c_t = p_t^{-1} \Gamma_t^{-1} z_t \dots \dots \dots (12)$$

여기서,

$$\Gamma_t = (1+\tau_t^c) \left[1 + (1+\tau_t^c)^{\frac{1}{\tau}-1} \sum_{i=t+1}^T (1+\tau_i^c)^{1-\frac{1}{\tau}} \cdot (1+\rho)^{-(i-t)\frac{1}{\tau}} \left(\frac{1+r}{1+\pi} \right)^{(i-t)(\frac{1}{\tau}-1)} \right]$$

$$z_t = a_t + h_t = a_t + \sum_{i=t}^T (1+r)^{-(i-t)} (1-\tau_i^l) w_i \dots \dots \dots (13)$$

한편 위의 式(12)로부터 代表家計에 대한 다음과 같은 Ando-Modigliani(1963)의 一生週期消費函數가 유도된다²⁰⁾.

$$p_i c_i \equiv C_i = \alpha w_i + k a_i, \dots\dots\dots(14)$$

Ⅲ. 世代重復「시물레이션」 모델의 基本構造

本研究의 「시물레이션」分析에서 이용되는 모델은 家計部門에 대한 41期間 部分均衡 一生週期模型(partial equilibrium life-cycle mo-

21) 基準年度가 1983年인 것은 비교적 最近資料의 一貫性을 유지하기 위해서이다.

22) 본연구에서와 같이 一生週期模型을 이용하여 構造의 租稅政策이 家計貯蓄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 研究로는 Summers(1981), Auerbach-Kotlikoff(1983), Auerbach-Kotlikoff-Skinner(1983), Evans(1983) 등이 있는데 이들 연구들과 구별되는 본연구의 특성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① 이들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연령별로 1인의 代表家計만 존재하고 연령별 賃金水準도 同一하다고 가정되는 반면 본연구에서는 賃金 및 人口에 대한 實際 및 推計資料가 사용된다. ② 본연구에서는 이와같이 實際 및 推計資料를 사용함에 따라 構造의 租稅政策이 家計貯蓄뿐만 아니라 社會厚生 혹은 經濟적효율, 소득분배 및 성장에 미치는 효과를 이들 연구에 비해 보다 현실적이고 종합적으로 분석할 수 있게 된다. ③ 본연구에서는 이들 연구와 달리 部分均衡模型이 이용되고 있는데 이는 우리나라의 경우 특히 利子率이 模型 안에서 결정되는 内生變數다기보다는 外生變數의 성격이 짙은 점과 아래의 [假定 6]에서도 언급되는 바와 같이 公金融·私金融市場이 병존하는 우리나라 資本市場의 二重構造를 감안한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假定 6]의 利子率의 算式에서도 보는 바와 같이 利子所得稅의 經濟적효과가 이 租稅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는 私金融市場의 존재로 인해 이들 연구에 비해 相對的으로 낮게 나타날 것으로 사료된다.

23) 이는 勞動의 供給이 完全非彈力的임을 의미한다. 勞動供給을 内生變數化(endogenize)하여 貯蓄과 租稅의 關係를 「시물레이션」模型에 의하여 分析한 研究로서 Auerbach-Kotlikoff-Skinner(1983)가 있고, 理論的模型을 이용하여 分析한 研究로서는 King(1980)이 있다.

24) 사람의 一生週期에 대한 이와 같은 區分은 주로 分析의 便宜와 慣例를 따른 것인데 人口保健研究院(1983)의 資料에 의하면 1970年에서 2005年에 걸쳐 男子의 경우 25~54세 연령층에서만 經濟活動參加率이 90% 이상으로 나타나며, 1975~80年 사이의 男子平均壽命이 62.7세인 점을 감안할 때 이 구분이 어느 정도는 現實性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del)이며, 매년 계속해서 41世代가 並存하는 世代重復模型(overlapping generations model)으로서 우리나라의 賃金과 人口 등에 대한 實際 및 推計資料를 이용하여 여러 가지 構造的 租稅政策이 「시물레이션」基準年度인 1983년부터²¹⁾ 2002년까지 20年 동안 全體家計部門의 貯蓄率뿐만 아니라 經濟的效率 또는 社會厚生, 所得分配 및 家計部門의 成長에 미치는 효과를 종합적으로 分析하게 된다²²⁾.

本章에서는 먼저 「시물레이션」模型의 基本假定과 利用資料에 대하여 略述하고, 이어서 본 「시물레이션」分析에서 이용되는 賃金 및 人口構造를 概觀하며, 마지막으로 1983年度에 대한 稅率, 利子率 및 인플레이션 등의 資料에 근거한 基準政策(reference policy)下에서 나타나는 個別 및 全體家口의 構造의特性을 살펴 보고자 한다.

1. 「시물레이션」模型의 假定 및 利用資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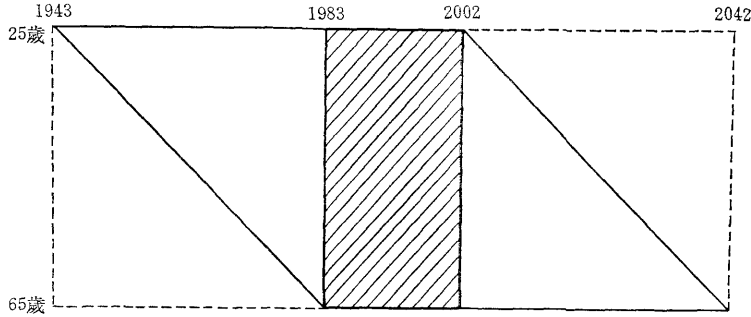
앞에서 分析한 代表家計에 대한 基本模型에서의 假定과 追加的으로 본 「시물레이션」模型에서 이용되는 假定들을 整理해 보면 다음과 같다.

[假定 1] 經濟는 家計部門으로만 構成되고 企業 및 政府部門은 고려하지 않는다.

[假定 2] 各家計는 동일한 效用函數를 지니며(homogeneous preference) 餘暇 혹은 勞動供給의 選擇問題는 고려하지 않는다²³⁾.

[假定 3] 各家計는 25歲에 職場을 얻고 經濟活動을 시작하여 55歲에 停年退職하며 65歲에 死亡하는 一生週期를 갖는다²⁴⁾.

〔圖 1〕 「시물레이션」 模型의 分析期間



〔假定 4〕 各家計는 父母로부터 아무런 財產을 相續받지 않고, 後孫에게도 아무런 遺産을 남기지 않는다²⁵⁾.

〔假定 5〕 各家計는 將來에 대한 完全한 眼目(perfect foresight)을 갖고 將來의 所得水準, 物價水準等 經濟變數에 대해 완전한 情報을 지니고 있다.

〔假定 6〕 名目利子率 r_t 는 우리나라 資本市場의 二重構造를 반영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

$$r_t = (1 - \lambda) (1 - \tau^k) r^a + \lambda r^b$$

여기서,

r^a 는 公金利水準, r^b 는 私金利水準, λ 는 家

計貯蓄중 私金融貯蓄이 차지하는 比重을 나타낸다.

〔假定 7〕 賃金上昇率 δ 와 인플레率 π 는 시간에 따라 변화하지 않고 항상 일정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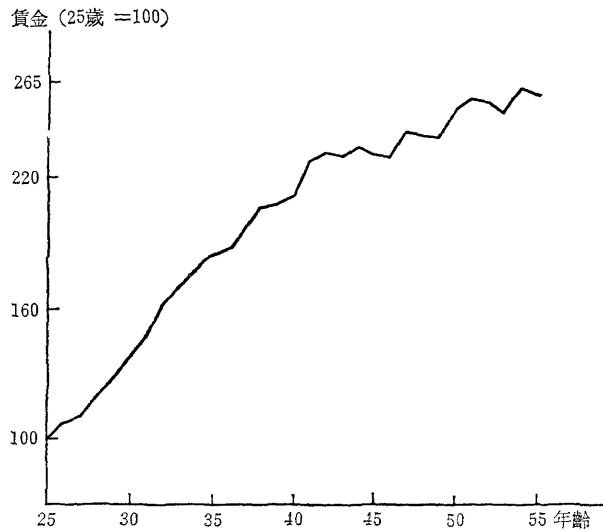
이와 같은 假定下에서 個個家計의 每期에 있어서의 消費·貯蓄水準 등은 앞에서 考察한 生涯效用函數(1)과 生涯豫算制約(9)를 이용한 極大化問題로부터 유도되는 均衡條件 (10), (11) 및 (12)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러한 個個家計의 問題로부터 출발하여 1983年에서 2002년까지 20年間 全體家計部門의 貯蓄率, 厚生水準, 所得分配 및 成長率을 算出하기 위해서는 個個家計의 賃金水準과 年齡別 人口에 대한 자

〈表 1〉 基準政策의 母數值

稅		率	
利子所得(τ^k)	勤勞所得(τ^L)	消 費(τ^c)	
0.1675	0.091	0.1170	
利 子 率		私 金 融 比 重(λ)	
公 金 融(r^a)	私 金 融(r^b)		
0.08	0.2577	0.442	
인 플 레 率(π)	賃 金 上 昇 率(δ)	時 間 選 好 率(ρ)	代 替 彈 力 性 係 數(γ)
0.0298	0.05	0.02	1.5

25) 遺産이 貯蓄에 미치는 影響의 重要性을 分析한 代表的인 研究로서 Kotlikoff-Summers(1981)가 있다.

[圖 2] 年齡—賃金 趨勢圖



료가 필요하게 된다. 또한 每家計가 41年間に 걸쳐서 消費·貯蓄水準等을 결정하는 가답에 실제로는 [圖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43年에서 2042년까지 100년에 걸쳐 賃金水準, 稅率, 利子率 등 經濟變數에 대한 자료가 필요하게 된다. 그러나 이와 같이 장기간에 걸친 資料가 사실상 존재하지 않으므로 本研究에서는不得已 다음과 같은 다소恣意的인 가정을 추가적으로 이용하여 政策「시뮬레이션」分析을 展開하고자 한다.

[假定 8] 基準政策의 경우 τ^k, τ^l, τ^c 등 租稅政策變數, r^a, r^b 등 金利變數, 私金融比重 λ , 인플레이率 π 는 基準年度인 1983年의 數值들이 全期間에 걸쳐 동일하게 적용된다.

[假定 9] 매해 各家計의 賃金은 1983年度 25~55歲의 年齡別 賃金이 매년 一定率로 增減한 수준과 같다.

基準政策의 경우 이용되는 여러 가지 母數들의 값은 <表 1>에 나타나 있고, 이들로부터 稅前名目利子率 $r' = 0.1585$, 稅後名目利子率 $r = 0.1511$, 稅後實質利子率 $r^* = 0.1178$, 個個家計의 實質消費增加率 $\theta = 0.0629$ 의 값들이 얻어진다²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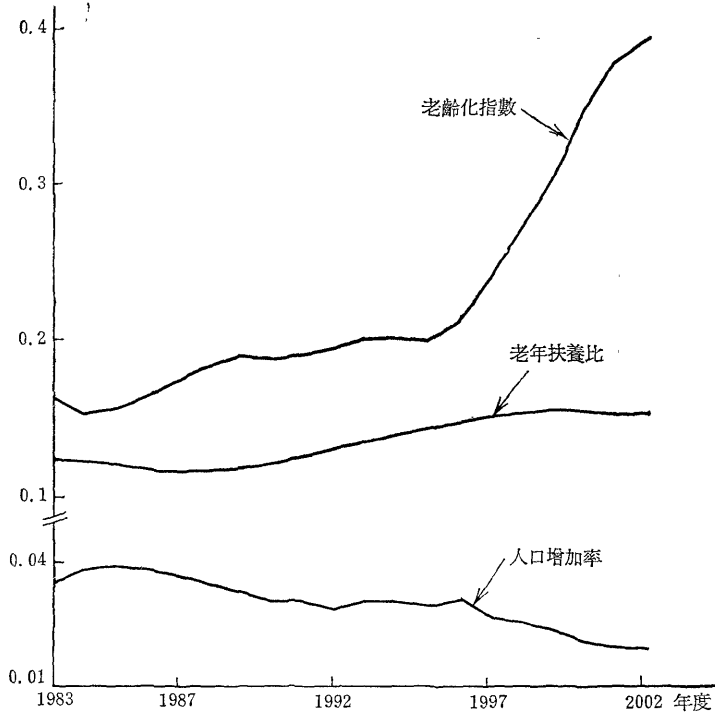
2. 賃金 및 人口構造

本研究에서와 같이 특히 모든 家計가 동일한 同調的(homothetic) 効用函數를 갖는 경우 賃金 및 人口構造가 個別家計에 대한 年齡別 家計貯蓄率과 全體家計에 대한 年度別 家計貯蓄率의 變化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지적될 수 있는데 本節에서는 本研究에서 이용되는 賃金 및 人口資料의 構造的 特性을 簡略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圖 2]에는 1983年度에 있어서 25歲부터 55歲에 걸쳐 25歲 賃金을 100으로 한 年齡—賃金 趨勢圖(age-earnings profile)가 나타나

26) 이 表에 나타난 여러 母數值와 賃金, 人口等 本研究에서 사용된 資料의 內容 및 出處에 대한 설명은 附錄에 수록되어 있다.

〔圖 3〕 人口構造의 變化 (1983~2002)



있다. 이 그림에서 賃金水準은 25歲부터 42歲까지는 꾸준히 증가하나 43歲 이후부터는 不規則인 增減現象을 보이고 있으며, 54歲에 頂

點에 이르러 25歲 賃金보다 2.62倍 가량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 그림에 나타난 賃金構造는 43歲 이후부터는 다소 不規則하나 전체적으로는 「右上向上昇型」의 特性을 지닌 것으로 보여진다²⁷⁾.

27) 이러한 特性은 40~50세를 頂點으로 「右上向 불룩型」을 나타내는 일본, 미국, 캐나다 등의 年齡·賃金 추세의 相異하다. 이에 대한 보다 詳細한 論議에 대해서는 朴恒求·朴世逸(1984) 참조.

28) 이 표에 나타난 經濟活動人口, 非經濟活動人口, 總人口, 老年扶養比, 老齡化指數의 概念은 現在 우리나라에서 사용되고 있는 統計的인 概念과 相異하다. 이 表에서 經濟活動人口는 完全雇傭을 假定하여 25~55세의 全就業人口, 非經濟活動人口는 56~65세의 退職人口, 總人口는 25~65세의 人口, 老年扶養比는 非經濟活動人口인 老年人口를 經濟活動人口인 靑·壯·中年人口로 나눈 比率, 老齡化指數는 最年長(65歲)人口를 最年少(25歲)人口로 나눈 比率를 의미한다. 반면, 統計的인 概念에 의하면 經濟活動人口는 滿14세이상 人口中 調査週間 동안 財貨와 用役을 生産하기 위하여 勞動을 提供할 意思와 能力이 있는 人口(就業者와 失業者로 區分된다.), 非經濟活動人口는 滿14세이상 人口中 就業者도 失業者도 아닌 人口, 즉 日할 能力은 있어도 日할 意思가 없거나(積極的인 求職活動을 하지 않는 경우) 혹은 日할 능력인 없는 人口(예, 家庭主婦, 學生, 年老者, 不具者), 老年扶養比는 65세이상 人口를 15~64歲 人口로 나눈 比率, 老齡化指數는 65세이상 人口를 0~14歲 人口로 나눈 比率를 意味한다.

한편 [圖 3]에는 1983년부터 2002년까지 20年 동안의 人口增加率, 老年扶養比, 老齡化指數의 變化趨勢가 나타나 있다²⁸⁾. 總人口의 增加率은 1985年의 3.79%를 頂點으로 1990年代 初盤에 다소 완만한 上昇勢를 보이는 起伏이 있으나 대체적으로 減少하는 추세를 나타내며 2002년에는 1.21%로 鈍化되고 있다.

한편 非經濟活動人口를 經濟活動人口로 나눈 老年扶養比는 最低點인 1987年의 11.78%까지 감소하다가 頂點인 1999年의 15.73%까지는 계속 증가하고 있고, 最年長(65歲) 人口를 最年少(25歲) 人口로 나눈 老齡化指數는 最

低水準인 1984년의 15.32로부터 다소간의起伏이 있으나 대체적으로 계속 상승하는 추세를 나타내 2002년에는 1983년 경우의 2.42배인 39.49에 달하여 人口가 급속히 老齡化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3. 基準政策下에서의 家計構造

本節에서는 앞에서 살펴본 賃金 및 人口資料와 <表 1>의 여러가지 母數値를 이용한 基準政策의 경우 나타나는 個別家計에 대한 微視的構造와 아울러 全體家計에 대한 巨視的構造

를 考察해 보고자 한다.

가. 個別家計의 構造

먼저 <表 2>에는 25, 35, 45, 55, 65歲의 다섯 家計에 대하여 基準年度인 1983年度의 家計收支內譯(income statement) 및 資産內譯(wealth statement) 등이 나타나 있다²⁹⁾. 이 表에서 消費支出은 年齡에 따라 꾸준히 增加하여 65歲 家口에서는 25歲家口보다 5.28배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貯蓄額도 負의 貯蓄(dissavings)이 나타나는 65歲家口를 제외하고 年齡에 따라 增加하여 55歲家口의 경우 總所得에 대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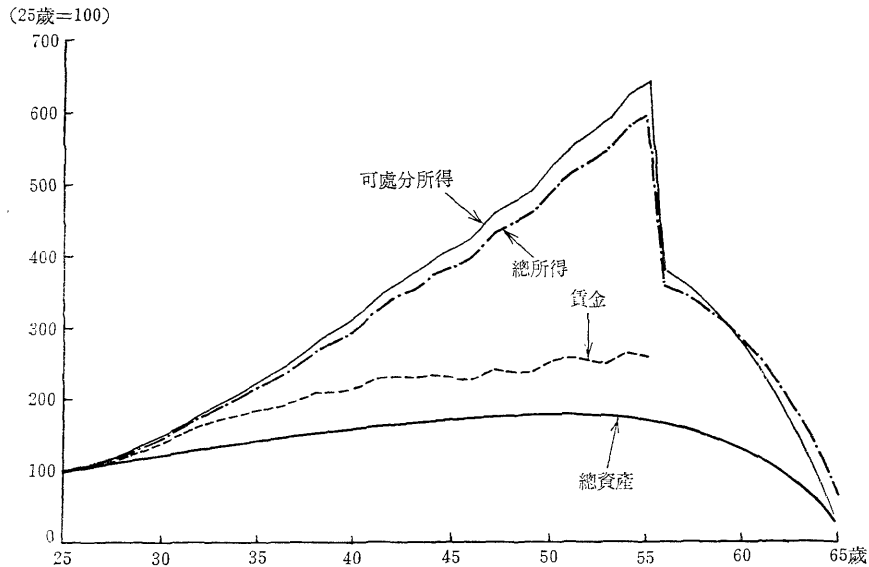
<表 2> 代表家計의 收支 및 資産內譯(基準政策)

(단위: 千원)

	25歲	35歲	45歲	55歲	65歲
I. 家計收支					
勤勞所得	4,096	7,604	9,461	10,634	0
利子所得	0	1,326	6,283	13,834	2,654
總所得	4,096	8,930	15,744	24,468	2,654
消費支出	3,268	4,953	7,508	11,379	17,248
消費稅	382	580	878	1,331	2,018
勤勞所得稅	373	692	861	968	0
利子所得稅	0	63	296	652	125
家計支出	4,023	6,288	9,543	14,331	19,392
貯蓄	73	2,643	6,201	10,137	-16,738
II. 家計資産					
物的資産	0	9,631	45,620	100,438	19,266
人的資産	64,939	79,427	65,874	9,666	0
總資産	64,939	89,058	111,494	110,104	19,266
III. 比率 및 比重					
貯蓄率	.0178	.2960	.3939	.4143	-6.3074
租稅負擔率	.1843	.1494	.1293	.1206	.8076
租稅比重	1.000	1.000	1.000	1.000	1.000
消費稅	.5064	.4344	.4315	.4511	.9416
勤勞所得稅	.4936	.5187	.4229	.3279	0
利子所得稅	0	.0469	.1456	.2210	.0584
消費/資産	.0503	.0556	.0673	.1034	.8953

29) 本模型에서 모든 家計가 年齡 및 賃金水準에서 차이가 나나 동일한 效用函數를 갖고 모든 母數値들이 시간에 따라 변화하지 않는다는 가정으로 인해 同一年齡家計의 家計收支와 資産 및 貯蓄의 絕對水準은 시간에 따라 변화하나 貯蓄率, 租稅負擔率, 租稅比重 등 比率는 매년 동일한 수준을 나타낸다.

[圖 4] 年齡—所得·資產 趨勢圖



家計貯蓄率は 41.43%로 나타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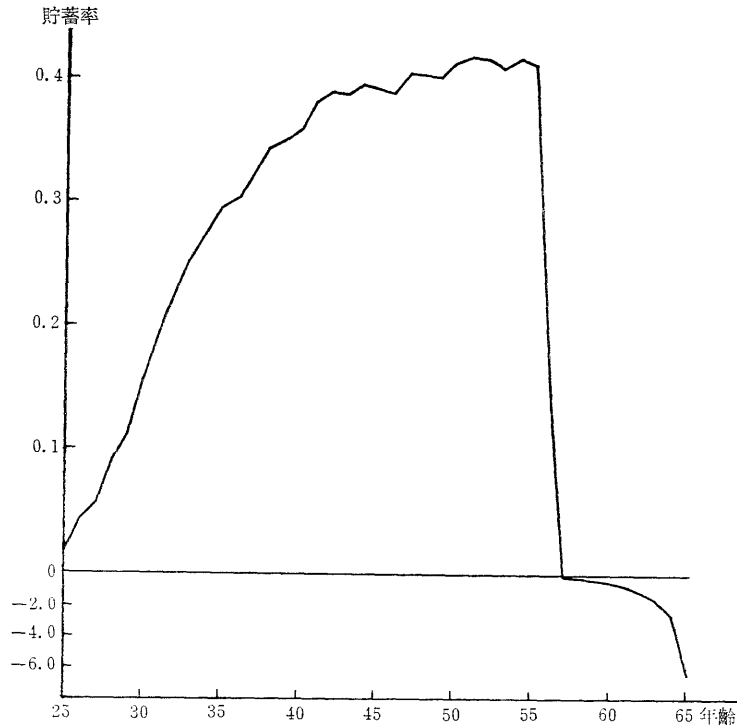
한편 [圖 4]에는 25歲家口의 경우를 100으로 한 年齡別 總所得, 可處分所得 및 總資產이 前節에서 살펴본 年齡別 賃金과 함께 나타나 있다. 먼저 總所得과 可處分所得은 55歲까지 꾸준히 증가하나 그 이후부터는 급격히 下落하는 構造를 보이고 있으며, 可處分所得이 오히려 總所得의 경우보다 급격히 변화하는 構造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는 租稅構造가 逆進的임을 의미하는 것이다. 한편 物的資產과 人的資產을 합한 總資產은 50歲家口를 頂點으로 總所得 및 可處分所得의 경우에 비해 매우 완만한 構造를 보이고 있다.

다음 [圖 5]에는 25~65歲家口에 걸쳐 年齡別家計貯蓄率이 나타나 있다. 이 그림에서 家計貯蓄率은 25歲家口의 1.78%에서 42歲家口의 39.1%까지 꾸준히 증가하나 43歲부터 55歲家口에서는 불규칙적인 增減現象을 보이고 있으

며, 54歲家口의 경우 41.84%의 가장 높은 貯蓄率을 나타내고 있다. 停年退職의 첫해를 맞는 56歲家口의 貯蓄率은 5.18%로 격감하고 57歲家口부터는 負의 貯蓄이 나타나 65歲의 家口의 경우 負의 貯蓄이 總所得의 6.3배에 달하고 있다. 여기서 特記할 만한 사실은 이 年齡—貯蓄率 趨勢圖가 25~55歲家口의 경우 우리가 [圖 2]에서 살펴본 年齡—賃金 趨勢圖와 거의 一致되는 변화의 樣相을 보인다는 점인데 이는 勤勞所得이 家計貯蓄의 변화를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變數中的의 하나인 사실을 나타내 주는 것이라 하겠다.

한편 [圖 6]에는 年齡別 租稅負擔率이 나타나 있는데 이 그림에서 家計의 租稅負擔率은 25歲家口의 18.43%에서 55歲家口의 12.06%까지 꾸준히 감소하고 그 이후부터는 비교적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하여 65歲家口의 경우 80.8%로서 最低水準인 55歲家口에 비해 6.7배나

〔圖 5〕 年齡—貯蓄率 趨勢圖



높은 租稅負擔率을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年齡—租稅負擔率 趨勢圖과 [圖 4]에 나타난 年齡—總所得 趨勢圖를 비교하여 전체적인 租稅構造를 살펴보면, 一次的으로는 逆進的인 租稅構造가, 二次的으로는 逆進度가 遞增하는 租稅構造가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³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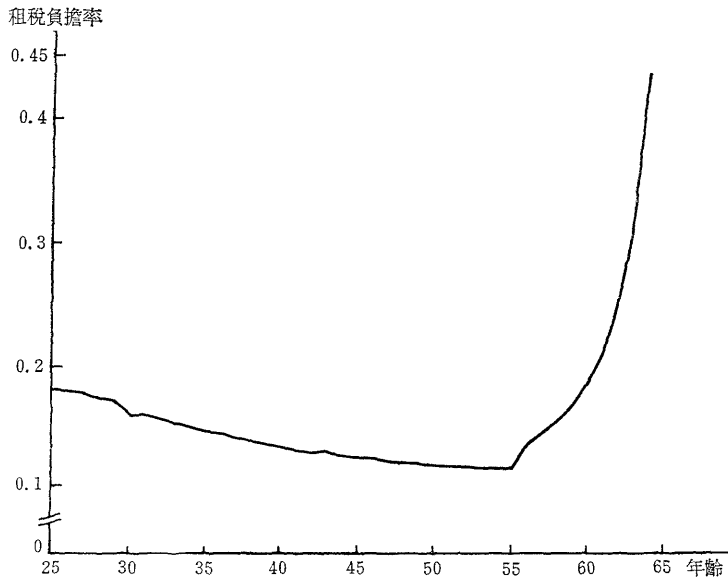
마지막으로 [圖 7]에는 年齡別 家計의 利子所得稅, 勤勞所得稅, 消費稅가 總租稅에서 차

지하는 비중이 나타나 있다. 먼저 消費稅의 비중은 25歲家口의 50.62%에서 42歲家口의 41.94%까지 서서히 감소하고 그 이후부터는 다소의 起伏이 있으나 대체적으로 증가하는 趨勢를 나타내며 65歲家口의 경우 94.17%로 급증하고 있다. 다음 勤勞所得稅의 比重은 25歲家口의 49.38%에서 最高水準인 33歲家口의 53.02%까지 서서히 증가하다가 그 이후부터는 감소하기 시작하는데 勤勞所得稅가 賦課되는 마지막 年齡인 55歲家口에서는 32.75%의 比重을 나타내고 있다. 한편 利子所得稅의 比重은 25歲家口의 0%에서 最高水準인 56歲家口의 33.36%까지 완만한 增加勢를 나타내나 그 이후부터는 비교적 급속히 감소하여 65歲家口에서는 5.84%의 比重을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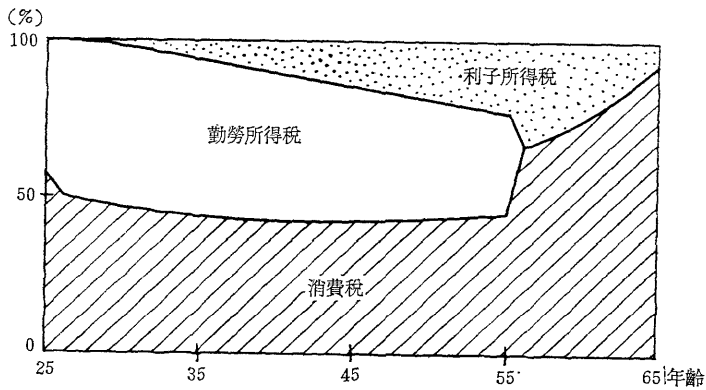
이와 같은 租稅의 比重趨勢를 比較·要約해

30) 全體의인 租稅構造는 두가지 側面에서 把握될 수 있다. 먼저 一次的인 構造는 所得이 增加함에 따라 平均稅率이 不變, 增加 혹은 減少하는 것인데 이에 따라 租稅는 各各 比例的的(proportional), 累進的(Progressive) 혹은 逆進的(regressive)인 構造를 갖는다고 말한다. 다음 二次的인 構造는 특히 累進的 및 逆進的인 경우 平均稅率의 增加率 및 減少率이 다시 增加하는가, 減少하는가 換言하여 所得의 增加에 따른 平均稅率의 變動이 遞增, 遞減 혹은 不變하는가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平均稅率의 變動率이 不變, 遞減, 혹은 遞增하는 정도를 包括的으로 租稅의 累進度 혹은 逆進度(degree of progressivity or regressivity)라고 부른다. 이에 관한 간략한 논의에 대해서는 Lee(1983) 참조.

[圖 6] 年齡—租稅負擔率 趨勢圖



[圖 7] 年齡別 租稅比重



보면 消費稅는 中·老年家計의 경우, 勤勞所得稅는 靑·壯年家計의 경우, 利子所得稅는 中年末 및 老年初家計의 경우 比重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消費稅의 경우 中·老年家計가, 勤勞所得稅는 靑·壯年家計가, 利子所得稅는 中年末 및 老年初의 家計가 상대적으로 가장 많은 部分을 負擔하게 됨을 의미한다.

나. 全體家計部門의 構造

〈表 3〉에는 1983年에서 2002年까지 20年 동안에 걸친 全體家計部門에 대한 貯蓄率, 家口當 實質消費, Gini係數 및 家計部門의 成長率 推移가 나타나 있고 [圖 8]에서 [圖 11]까지는 이들 變數의 變化趨勢가 그려져 있다. 먼저 全體家計의 貯蓄率은 1983年의 24.04%에서 1985

〈表 3〉 主要經濟變數의 變化(基準政策)

	家計貯蓄率	家口當實質消費 (千圓)	Gini係數	成長率
1983	0.2404	6,747	0.3993	0.0853
1984	0.2403	6,864	0.4010	0.0861
1985	0.2396	6,984	0.4034	0.0865
1986	0.2397	7,109	0.4046	0.0872
1987	0.2403	7,239	0.4049	0.0861
1988	0.2412	7,377	0.4045	0.0845
1989	0.2416	7,533	0.4033	0.0838
1990	0.2418	7,700	0.4019	0.0815
1991	0.2406	7,886	0.4007	0.0807
1992	0.2384	8,085	0.4000	0.0788
1993	0.2364	8,288	0.3989	0.0808
1994	0.2340	8,490	0.3988	0.0791
1995	0.2314	8,697	0.3988	0.0782
1996	0.2285	8,908	0.3990	0.0787
1997	0.2255	9,141	0.3972	0.0754
1998	0.2239	9,369	0.3943	0.0751
1999	0.2237	9,610	0.3884	0.0754
2000	0.2253	9,863	0.3789	0.0751
2001	0.2282	10,123	0.3671	0.0751
2002	0.2308	10,390	0.3554	0.0736
平均	0.2346	8,320	0.3950	0.0804

31) 한편 李啓植(1985A)에서는 1984年度 都市家計의 貯蓄率이 24.7%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 率의 1984年度에 대한 家計貯蓄率 24.03%는 이 數値와 매우 근사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32) 시간에 따라 家計貯蓄率이 왜 [圖 8]에 나타난 樣相으로 변화하는가에 대해서는 만족할 만큼 명쾌한 見地를 제시할 수 없으나 다만 여기서 지적할 수 있는 것은 前述한 바와 같이 [圖 5]에 나타난 年齡—家計貯蓄率 趨勢圖가 매년 동일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人口構造의 변화가 全體家計貯蓄率의 變化를 결정하는 주된 요인 중의 하나라는 사실이다. [圖 3]에 나타난 人口構造의 變化를 살펴보면 老年扶養比의 趨勢圖에서 增減現象이 대체적으로 [圖 8]의 家計貯蓄率의 趨勢圖와 對稱的으로 일어나며 특히 家計貯蓄率의 最低水準과 老年扶養比의 最高水準이 동일한 1999년에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이해에 負의 貯蓄이 나타나는 老年層 人口가 正의 貯蓄이 나타나는 25~55세 人口에 비해 가장 濃게 되어 家計貯蓄率이 가장 낮아지게 된다는 推測이 가능할 것이다.

33) 이 家口當 實質消費는 社會厚生을 測定하는 가장 단순한 指標이며 이보다 精緻한 社會厚生指標로서는 所得의 等價的 變差(equivalent variation)나 補整的 變差(compensating variation)等 消費者剩餘의 概念을 이용한 指標가 특히 本研究에서와 같은 租稅政策「시플테이션」分析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最近에는 Jorgenson-Slesnick(1982)에 의해서 貨幣單位로 測定한 社會厚生指數(money metric social welfare index)가 소개되고 있다. 이 指數에 관한 간략한 논의에 대해서는 郭泰元(1983) 참조.

년까지는 서서히 감소하다³¹⁾ 1986년부터는 완만한 增加勢를 나타내어 1990년에 24.18%의 頂點에 달하게 된다. 그 이후부터는 다소 급격히 減少하여 1999년에는 22.37%의 最低水準을 나타내며 그 이후 2002년까지 다시 增加하는 趨勢를 보이고 있다³²⁾.

다음 全體家計의 厚生水準(social welfare) 또는 家計部門의 經濟的效率(economic efficiency)을 測定하는 家口當實質消費³³⁾는 1983年の 675萬圓에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 2002년에는 1983年の 경우보다 1.5배 가량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圖 9]에서 家口當實質消費의 時間經路는 위로부터 오목한(concave) 形態를 나타내 매년 增加率 자체도 遞增함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全體家計의 所得分配狀態를 나타내는 可處分所得에 대한 Gini係數는 1983年の 0.3993에서 서서히 증가하여 1987년에는 0.4049인 頂點에 이른다. 그 이후 1996년까지는 대체적으로 완만한 減少趨勢를 보이거나 그 이후부터는 다소 급격하게 감소하여 마지막 해인 2002년에는 最低水準을 나타내며 20年 전체적으로는 所得分配가 개선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³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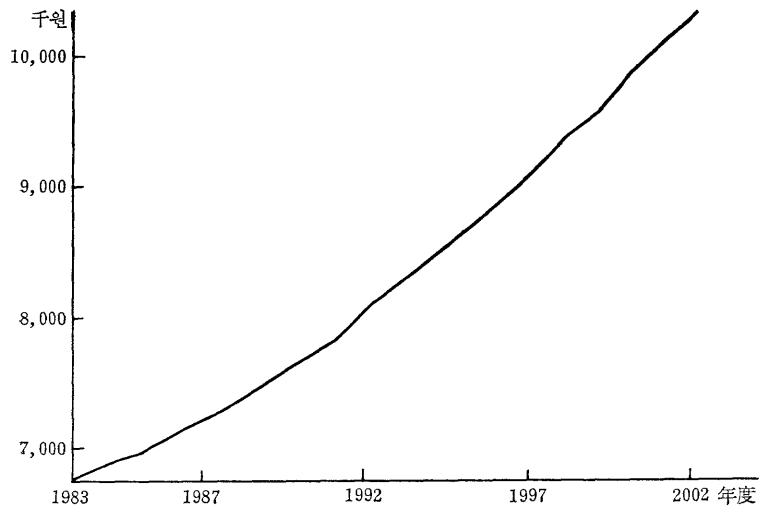
마지막으로 家計全體 總所得의 增加率로 나타낸 家計部門의 成長率은 1983年の 8.53%에서 最高水準인 1986年の 8.72%까지 增加勢를 나타낸다. 그 이후 2002년까지는 몇 차례 起伏이 있으나 대체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여 2002년에는 7.36%의 最低水準을 나타내고 있으며 20年 전체적으로는 家計部門의 成長이 완만하게 鈍化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상의 全體家計部門의 構造變化를 要約하면 1983~2002년까지 20年 동안 대체적으로 家計貯蓄率과 家計部門의 成長率은 감소하나 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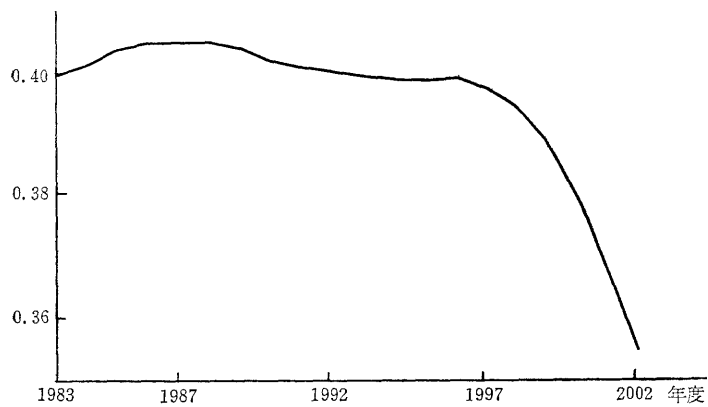
〔圖 8〕 家計貯蓄率 推移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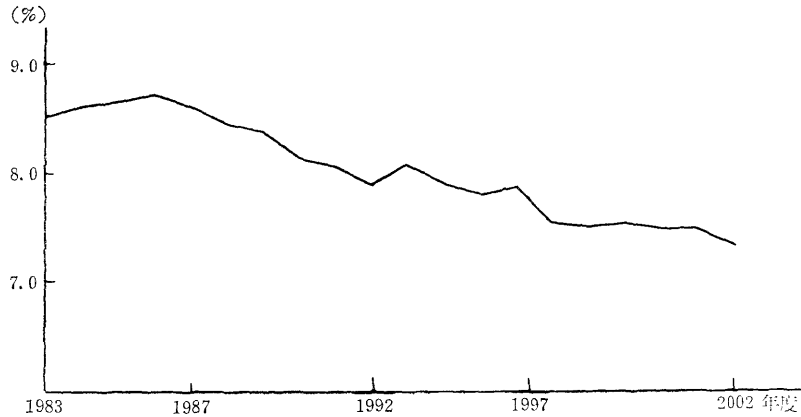
〔圖 9〕 家口當 實質消費 推移



〔圖 10〕 Gini 係數 推移



[圖 11] 成長率 推移



口當 實質消費은 증가하는 한편 所得分配은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은 構造變化를 人口構造의 변화로부터 출발하여 概略적으로 설명해 보면 다음과 같다³⁵⁾.

먼저 人口構造는 [圖 3]의 老齡化指數 및 老年扶養比가 나타내는 바와 같이 生産的인 靑壯年層에 비해 老年層人口가 상대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負의貯蓄이 正의貯蓄보다 상대적으로 증가하게 되어 全體家計部門의 貯蓄率은 감소하며 全體家計勤勞所得의 增加率도 鈍化된다. 이와 같은 貯蓄率과 勤勞所得 增加率의 감소로 인해 家計部門의 成長率도 鈍化되며³⁶⁾ 家計貯蓄率과 家

計部門의 成長率이 감소함에 따라 所得分配가 개선된다³⁷⁾.

Ⅵ. 租稅政策「시뮬레이션」 結果

本章에서는 앞에서 살펴본 基準政策의 경우를 토대로 한 租稅政策「시뮬레이션」分析을 통하여 여러가지 상이한 構造의租稅政策이 全體家計部門의 貯蓄率뿐만 아니라 厚生水準, 所得分配 및 成長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第1節에서는 1983년부터 2002년까지 20年 동안 租稅構造를 조정하는 다섯가지 構造의 租稅政策에 대한「시뮬레이션」결과를 분석하고 第2節에서는 이 다섯가지 構造의 租稅政策 중 어느 租稅政策이 家計貯蓄增大 등 政府의 政策目標를 달성함에 있어 보다 더 效果的인가 하는 여러 租稅政策間의 정책效果면에서의 順位를 요약하고자 한다.

34) 우리나라 所得分配에 대한 Gini係數의 推定値는 0.3908(1976), 0.3891(1980), 0.3574(1982)로 所得分配가 점차 改善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1976, 1982년 推定値는 朱鶴中·尹珠賢(1984), 1980년 推定値는 經濟企劃院, 『韓國의 社會指標』(1983, p. 74) 참조.

35) 家口當 實質消費의 增加趨勢는 個家計의 年間實質消費增加率이 6.29%로 일정한 本模型의 基本特性에서 緣由한다.

36) 여기서 家計部門의 成長率은 勤勞所得과 利子所得의 合인 全體家計所得의 增加率로 表示된다.

37) 이와 같은 推論은 貯蓄과 成長 사이에 正의 關係가 成立하고 貯蓄과 經濟成長이 富益富 貧益貧 現象을 深化시킴에 따라 貯蓄과 所得分配, 成長과 所得分配 사이에 逆의 關係가 成立한다는 매우 단편적인 觀測에 基礎한 것으로, 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反論이 제기될 수 있을 것이다.

1. 構造的租稅政策의 效果分析

本節에서 고려되는 構造的 租稅政策은 <表 4>에 정리되어 있는 바와 같이 利子所得稅, 勤勞所得稅, 消費稅 중 한가지 혹은 두가지 租稅의 稅率을 引下하는 대신 20年間 政府租稅收入의 現在價値를 不變하게 하는 수준으로 다른 租稅의 稅率을 引上하는 경우이다³⁸⁾. 이하에서는 <表 4>에 나타난 순서대로 다섯가지 構造的 租稅政策에 대한 「시뮬레이션」 결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가. 租稅政策 I

租稅政策 I 은 利子所得稅를 引下하고 20年間 租稅收入의 現在價値를 不變하게 하는 수준으

로 勤勞所得稅를 引上하는 경우이다. <表 5>에 는 基準政策의 利子所得稅率 16.75%를 1/4씩 단계적으로 引下하는 네가지 경우에 대해 稅率, 利子率 및 個別家計의 實質消費增加率이 나타나 있는데 利子所得稅가 引下됨에 따라 利子率 및 消費增加率は 基準政策의 경우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한편 <表 6>에는 引下率의 네가지 경우에 있어서 9個年度에 대한 家計貯蓄率, 家口當實質消費, Gini係數 및 成長率이 나타나 있다³⁹⁾.

먼저 家計貯蓄率은 이 表에 나타난 모든 경우 基準政策의 경우에 비해 증가하고 있다. 20年間の 平均水準은 引下率 $\alpha=1/4, 1/2, 3/4, 1$ 에 따라 23.67, 23.88, 24.07, 24.26%로 증가하며 利子所得稅를 完全非課稅하는 경우 20年 平均 家計貯蓄率은 基準政策의 경우보다 1.03

<表 4> 構造的 租稅政策

租稅政策	引下稅目	引上稅目	不變稅目
I	利子所得稅	勤勞所得稅	消費稅
II	"	消費稅	勤勞所得稅
III	勤勞所得稅	"	利子所得稅
IV	利子 및 勤勞所得稅	"	無
V	消費稅 및 利子所得稅	勤勞所得稅	無

<表 5> 主要母數値의 變化(租稅政策 I)

租稅引下率	稅 率			利 子 率		消 費 增加率
	利子所得	勤勞所得	消 費	名 目	實 質	
$\alpha=1/4$	0.1256	0.1009	0.1170	0.1529	0.1196	0.0641
1/2	0.0838	0.1111	↓	0.1548	0.1214	0.0652
3/4	0.0419	0.1215	↓	0.1567	0.1232	0.0664
1	0	0.1322	↓	0.1585	0.1250	0.0675

38) 여기서 租稅引下率은 1/4, 1/2, 3/4, 1의 네가지를 고려하는데 이것을 數式으로 표시하면 $x'=(1-\alpha)x$, $\alpha=1/4, 1/2, 3/4, 1$. 여기서 α 는 租稅引下率, x 는 기준정책에서의 稅率을 나타낸다. 20년간 租稅收入의 現在價値를 不變하게 유지하는 引上稅目的 稅率計算에 있어서는 兩分法(bisectional algorithm method)을 사용하였다.

39) 이 表에는 紙面의 簡略과 설명의 편의를 위해서 1983~87년의 5個年과 1990, 1995, 2000, 그리고 마지막 해인 2002년의 9個年度에 대한 數値들이 나타나 있다.

배 가량 높게 나타나고 있다. 한편 全體家計의 厚生水準을 나타내는 家口當實質消費 역시 이 表에 나타난 모든 경우 基準政策의 경우보다 증가하고 있다.

다음 全體家計의 所得分配狀態를 나타내는 Gini係數 역시 모든 경우 基準政策의 경우보다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利子所得稅가 引下되고 勤勞所得稅가 引上됨에 따라 전체적인 所得分配가 惡化됨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家計全體 總所得의 증가율로 나타낸 家計部門의 成長率은 대부분의 경우 基準政策의 경우와 거의 동일한 수준을 나타내며 20年 平均水準에 있어서는 미미하게나마 增加勢를 보이고 있다⁴⁰⁾.

한편 <表 7>에는 이제까지의 결과를 보다 간결하게 요약하고 여러가지 상이한 構造的 租稅政策의 效果를 보다 용이하게 비교하기 위해서 基準政策과 租稅政策 I의 20年 平均値를 이용하여 租稅引下率에 대한 家計貯蓄率, 家口當實質消費, Gini係數 및 成長率의 彈性値가 정리되어 있다⁴¹⁾. 家計貯蓄率과 家口當實質消費의 경우 引下率이 증가할수록 彈性値가 감소하며 彈性値의 크기는 家計貯蓄率과 Gini係數의 경우 비교적 높고 成長率의 경우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다.

이제까지는 全體家計에 대한 巨視的 構造를 중심으로 두 租稅政策의 결과를 비교하였는데 두 政策間의 차이점은 個別家口에 대한 微視的

<表 6> 主要經濟變數의 變化(租稅政策 I)

	家計貯蓄率	家口當實質消費	Gini係數	成長率
A. $\alpha=1/4$ (千원)				
1983	0.2426	6,753	0.4047	0.0853
1984	0.2425	6,870	0.4062	0.0861
1985	0.2418	6,990	0.4085	0.0865
1986	0.2419	7,115	0.4095	0.0872
1987	0.2425	7,245	0.4099	0.0861
1990	0.2441	7,706	0.4071	0.0815
1995	0.2336	8,709	0.4040	0.0782
2000	0.2272	9,884	0.3845	0.0751
2002	0.2326	10,415	0.3612	0.0736
平均	0.2367	8,332	0.4003	0.0804
B. $\alpha=1/2$				
1983	0.2447	6,758	0.4049	0.0853
1984	0.2446	6,875	0.4065	0.0861
1985	0.2439	6,995	0.4087	0.0864
1986	0.2440	7,119	0.4098	0.0872
1987	0.2446	7,249	0.4101	0.0861
1990	0.2462	7,712	0.4073	0.0816
1995	0.2357	8,721	0.4043	0.0782
2000	0.2290	9,904	0.3848	0.0751
2002	0.2343	10,430	0.3615	0.0736
平均	0.2388	8,342	0.4005	0.0804
C. $\alpha=3/4$				
1983	0.2467	6,762	0.4090	0.0853
1984	0.2466	6,878	0.4104	0.0861
1985	0.2459	6,998	0.4127	0.0864
1986	0.2460	7,123	0.4138	0.0872
1987	0.2466	7,253	0.4139	0.0861
1990	0.2483	7,716	0.4108	0.0816
1995	0.2377	8,731	0.4078	0.0783
2000	0.2308	9,922	0.3889	0.0751
2002	0.2360	10,461	0.3658	0.0736
平均	0.2407	8,351	0.4043	0.0804
D. $\alpha=1$				
1983	0.2487	6,765	0.4115	0.0852
1984	0.2485	6,881	0.4130	0.0860
1985	0.2478	7,001	0.4152	0.0864
1986	0.2479	7,125	0.4161	0.0872
1987	0.2485	7,255	0.4161	0.0860
1990	0.2502	7,718	0.4132	0.0816
1995	0.2396	8,740	0.4100	0.0783
2000	0.2325	9,939	0.3910	0.0751
2002	0.2375	10,481	0.3681	0.0736
平均	0.2426	8,359	0.4066	0.0804

40) 成長率의 경우 本章의 여러 表에 나타난 소수점 이하 네자리의 數值에서는 상이한 租稅政策에 따른 變化를 찾아보기 어려운데 本章에서의 成長率의 變化에 대한 논의 내용은 成長率의 소수점 이하 다섯자리 이상의 수치와 彈性値의 비교에 근거한 것이다.

41) 彈性値를 數式으로 표시하면 $\eta_{zr} = \frac{d \ln z}{d \ln r}$ 여기서 z는 家計貯蓄率, 家口當實質消費, Gini係數 및 成長率을 나타내며 $d \ln r$ 는 각 租稅의 引下率로서 α 와 同一하다.

〈表 7〉 主要變數의 彈性值(租稅政策 I)

租稅引下率	家計貯蓄率	家口當實質消費	Gini係數	成長率
$\alpha=1/4$	-0.0365	-0.0058	-0.0531	-0.0005
1/2	-0.0356	-0.0053	-0.0280	-0.0005
3/4	-0.0348	-0.0050	-0.0315	-0.0005
1	-0.0341	-0.0047	-0.0293	-0.0005

構造를 비교함으로써 보다 명료하게 드러날 수 있을 것이다. 〈表 8〉에는 基準政策의 〈表 2〉에 상응하여 租稅政策 I에서 利子所得稅가 完全非課稅되는 경우 基準年度인 1983年의⁴²⁾ 5個家口에 대한 家計收支 및 資産內譯 등이 정리 되어 있다. 먼저 消費支出은 25, 35歲의 靑·

壯年家口에서는 감소하나 45, 55, 65歲의 中·老年家口에서는 증가하고 있다. 家計貯蓄額은 基準政策의 경우에 비해 25~55歲家口에서 모두 증가하나 家計貯蓄率은 55歲家口의 경우 감소하고 있다. 租稅負擔率은 25~45歲家口에서는 증가하고 55, 65歲家口에서는 감소하고 있는데 이는 利子所得稅가 完全非課稅되고 勤勞所得稅가 9.10%에서 13.22%로 引上됨에 따라 靑·壯年家口의 租稅負擔이 상대적으로 늘어난 반면 中年末 및 老年層家口의 租稅負擔이 상대적으로 줄어든 까닭으로 풀이된다.

〈表 8〉 代表家計의 收支 및 資産內譯(租稅政策 I ; $\alpha=1$)

(단위 : 千원)

	25歲	35歲	45歲	55歲	65歲
I. 家計收支					
勤勞所得	4,096	7,604	9,461	10,634	0
利子所得	0	1,507	6,629	14,331	2,877
總所得	4,096	9,111	16,090	24,965	2,877
消費支出	3,000	4,748	7,514	11,892	18,819
消費稅	351	556	879	1,391	2,202
勤勞所得稅	541	1,005	1,250	1,405	0
利子所得稅	0	0	0	0	0
家計支出	3,892	6,309	9,643	14,688	21,021
貯蓄	203	2,802	6,446	10,276	-18,144
II. 家計資産					
物的資産	0	11,010	48,437	104,721	21,021
人的資産	57,934	72,346	61,206	9,229	0
總資産	57,934	83,356	109,643	113,950	21,021
III. 比率 및 比重					
貯蓄率	.0497	.3076	.4006	.4116	-6.3074
租稅負擔率	.2179	.1713	.1324	.1120	.7654
租稅比重	1.000	1.000	1.000	1.000	1.000
消費稅	.3934	.3560	.4128	.4975	1.000
勤勞所得稅	.6066	.6440	.5872	.5025	0
利子所得稅	0	0	0	0	0
消費/資産	.0518	.0570	.0685	.1044	.8953

42) 前章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동일연령가구의 家計收支, 資産 및 貯蓄의 절대수준은 年度에 따라 변화하나 貯蓄率, 租稅負擔率, 租稅比重 등은 매년 동일한 수준을 나타낸다.

나. 租稅政策 II

이 租稅政策은 利子所得稅를 引下하는 대신 20年間 租稅收入의 現在價値를 不變하게 하는 수준으로 消費稅를 引上하는 경우이다. <表 9>에는 利子所得稅率을 1/4씩 단계적으로 引下하는 네 경우의 稅率, 利子率 및 消費增加率이 나타나 있는데 利子率 및 消費增加率은 基準

政策의 경우보다 높고 租稅政策 I의 경우와는 동일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한편 <表 10>에는 네 가지 경우에 있어서 9個年度에 대한 家計貯蓄率 등이 나타나 있다.

먼저 家計貯蓄率은 이 表에 나타난 모든 경우 基準政策은 물론 租稅政策 I의 경우보다 증가하고 있다. 20년간 家計貯蓄率의 평균수준은 α 의 네 값에 따라 23.83, 24.20, 24.56,

<表 9> 主要母數値의 變化(租稅政策 II)

租稅引下率	稅 率			利 子 率		消費增加率
	利子所得	勤勞所得	消 費	名 目	實 質	
$\alpha=1/4$	0.1256	0.0910	0.1262	0.1529	0.1196	0.0641
1/2	0.0838	↓	0.1357	0.1548	0.1214	0.0652
3/4	0.0419	↓	0.1456	0.1567	0.1232	0.0664
1	0	↓	0.1557	0.1585	0.1250	0.0675

<表 10> 主要經濟變數의 變化(租稅政策 II)

	家計貯蓄率	家口當實質消費	Gini係數	成長率	年度	家計貯蓄率	家口當實質消費	Gini係數	成長率
A. $\alpha=1/4$ (千圓)					C. $\alpha=3/4$				
1983	0.2442	6,772	0.4057	0.0853	1983	0.2519	6,822	0.4112	0.0852
1984	0.2441	6,889	0.4072	0.0861	1984	0.2517	6,940	0.4127	0.0860
1985	0.2434	7,009	0.4095	0.0865	1985	0.2510	7,061	0.4149	0.0864
1986	0.2436	7,134	0.4105	0.0872	1986	0.2511	7,186	0.4158	0.0872
1987	0.2442	7,265	0.4109	0.0861	1987	0.2518	7,317	0.4160	0.0860
1990	0.2457	7,728	0.4079	0.0816	1990	0.2534	7,784	0.4133	0.0816
1995	0.2352	8,733	0.4051	0.0782	1995	0.2425	8,809	0.4103	0.0783
2000	0.2287	9,911	0.3857	0.0751	2000	0.2355	10,011	0.3911	0.0751
2002	0.2341	10,444	0.3624	0.0736	2002	0.2407	10,554	0.3681	0.0737
平均	0.2383	8,355	0.4013	0.0804	平均	0.2456	8,426	0.4066	0.0804
B. $\alpha=1/2$					D. $\alpha=1$				
1983	0.2481	6,797	0.4083	0.0853	1983	0.2556	6,848	0.4149	0.0852
1984	0.2479	6,914	0.4098	0.0861	1984	0.2555	6,966	0.4163	0.0860
1985	0.2472	7,035	0.4121	0.0864	1985	0.2548	7,087	0.4186	0.0864
1986	0.2474	7,160	0.4131	0.0872	1986	0.2549	7,213	0.4195	0.0871
1987	0.2480	7,291	0.4135	0.0861	1987	0.2555	7,344	0.4196	0.0860
1990	0.2496	7,756	0.4107	0.0816	1990	0.2572	7,813	0.4165	0.0817
1995	0.2389	8,771	0.4077	0.0783	1995	0.2462	8,847	0.4135	0.0784
2000	0.2321	9,961	0.3883	0.0751	2000	0.2388	10,061	0.3950	0.0752
2002	0.2374	10,498	0.3650	0.0737	2002	0.2440	10,610	0.3719	0.0737
平均	0.2420	8,390	0.4039	0.0804	平均	0.2493	8,462	0.4101	0.0805

24.93%로 증가하며 특히 利子所得稅가 完全非課稅되는 경우 20年平均 家計貯蓄率은 基準政策의 경우보다 1.06배, 租稅政策 I의 경우보다 1.03배 높게 나타나고 있다. 家口當實質消費도 基本政策과 租稅政策 I의 경우보다 모든 경우 증가하고 있다.

다음 Gini係數 역시 基本政策과 租稅政策 I의 경우보다 증가하여 利子所得稅가 引下되고 消費稅가 引上됨에 따라 所得分配는 더욱 惡化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家計部門의 成長率은 거의 대부분의 경우 基準政策과 租稅政策 I의 경우와 비슷한 수준을 나타내며 20年 平均水準에 있어서는 基準政策과 租稅政策 I의 경우보다 미미하게나마 증가하고 있다.

한편 <表 11>에는 前項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租稅引下率에 대한 家計貯蓄率 등의 彈性値가 정리되어 있다. 彈性値의 크기는 家計貯蓄率의 경우 가장 높고 成長率의 경우 가장 낮다. 이 彈性値의 크기를 租稅政策 I의 경우와 비교해 보면 모든 경우 증가하고 있으며 家計貯蓄率의 경우는 거의 2배, 實質消費의 경우는 거의 3배 이상의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역시 <表 12>에는 前項에서와 같이 租稅政

<表 11> 主要變數의 彈性値(租稅政策 II)

租稅引下率	家計貯蓄率	家口當實質消費	Gini係數	成長率
$\alpha=1/4$	-0.0633	-0.0168	-0.0637	-0.0010
1/2	-0.0630	-0.0168	-0.0452	-0.0012
3/4	-0.0629	-0.0170	-0.0392	-0.0012
1	-0.0627	-0.0171	-0.0382	-0.0012

<表 12> 代表家計의 收支 및 資産內譯(租稅政策 II ; $\alpha=1$)

(단위 : 千원)

	25歲	35歲	45歲	55歲	65歲
I. 家計收支					
勤勞所得	4,096	7,604	9,461	10,634	0
利子所得	0	1,578	6,943	15,011	3,013
總所得	4,096	9,182	16,404	25,645	3,013
消費支出	3,037	4,806	7,607	12,038	19,051
消費稅	473	749	1,185	1,875	2,967
勤勞所得稅	373	692	861	968	0
利子所得稅	0	0	0	0	0
家計支出	3,883	6,247	9,653	14,881	22,018
貯蓄	213	2,935	6,752	10,764	-19,005
II. 家計資産					
物的資産	0	11,532	50,735	109,688	22,018
人的資産	60,681	75,778	64,109	9,666	0
總資産	60,681	87,310	114,844	119,354	22,018
III. 比率 및 比重					
貯蓄率	.0520	.3197	.4116	.4197	-6.3074
租稅負擔率	.2065	.1569	.1247	.1108	.9847
租稅比重	1.000	1.000	1.000	1.000	1.000
消費稅	.5593	.5196	.5791	.6596	1.000
勤勞所得稅	.4407	.4804	.4209	.3404	0
利子所得稅	0	0	0	0	0
消費/資産	.0501	.0551	.0662	.1009	.8652

策Ⅱ에서 利子所得稅가 完全非課稅되는 경우 1983年 5個家口의 收支 및 資産內譯 등이 정리 되어 있다. 먼저 消費支出은 基準政策의 경우에 비해 25,35歲家口를 제외한 3家口에서는 증가하며 租稅政策Ⅰ의 경우에 비해서는 5家口 모두 증가하고 있다. 한편 貯蓄額 및 貯蓄率은 基準政策과 租稅政策Ⅰ에 비해 모두 높고 특히 25歲家口의 경우 家計貯蓄額이 基準政策의 경

우보다 2.9배나 증가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租稅負擔率은 基準政策의 경우와 비교할 때 25, 35, 65歲家口에서는 증가하나 45, 55歲家口에서는 減少하고 있다. 한편 租稅政策Ⅰ의 경우와 비교하면 65歲家口를 제외한 네 家口에서 모두 감소하고 있는데 이는 利子所得稅가 完全非課稅되는 대신 消費稅가 11.70%에서 15.57%로 늘어난데 따라 老年家計의 租稅負擔이 상대적

〈表 13〉 主要母數値의 變化(租稅政策Ⅲ)

租稅引下率	稅 率			利 子 率		消費增加率
	利子所得	勤勞所得	消 費	名 目	實 質	
$\alpha=1/4$	0.1675	0.0683	0.1379	0.1511	0.1178	0.0629
1/2	↓	0.0455	0.1586	↓	↓	↓
3/4		0.0228	0.1791			
1	↓	0	0.1993	↓	↓	↓

〈表 14〉 主要經濟變數의 變化(租稅政策Ⅲ)

	家計貯蓄率	家口當實質消費	Gini係數	成長率	年度	家計貯蓄率	家口當實質消費	Gini係數	成長率
	A. $\alpha=1/4$ (千圓)					C. $\alpha=3/4$			
1983	0.2441	6,789	0.4032	0.0853	1983	0.2512	6,872	0.4067	0.0853
1984	0.2440	6,906	0.4049	0.0861	1984	0.2511	6,991	0.4084	0.0861
1985	0.2433	7,027	0.4073	0.0865	1985	0.2504	7,113	0.4108	0.0864
1986	0.2434	7,153	0.4085	0.0872	1986	0.2506	7,240	0.4120	0.0872
1987	0.2440	7,284	0.4087	0.0861	1987	0.2512	7,373	0.4123	0.0861
1990	0.2455	7,747	0.4057	0.0816	1990	0.2527	7,842	0.4091	0.0816
1995	0.2349	8,750	0.4028	0.0782	1995	0.2417	8,857	0.4066	0.0783
2000	0.2286	9,923	0.3830	0.0751	2000	0.2351	10,045	0.3871	0.0752
2002	0.2342	10,454	0.3594	0.0737	2002	0.2408	10,582	0.3635	0.0738
平均	0.2381	8,371	0.3990	0.0804	平均	0.2450	8,474	0.4027	0.0804
	B. $\alpha=1/2$					D. $\alpha=1$			
1983	0.2477	6,830	0.4052	0.0853	1983	0.2547	6,913	0.4077	0.0853
1984	0.2476	6,948	0.4069	0.0861	1984	0.2546	7,033	0.4092	0.0860
1985	0.2469	7,070	0.4094	0.0865	1985	0.2539	7,156	0.4116	0.0864
1986	0.2470	7,196	0.4106	0.0872	1986	0.2540	7,284	0.4127	0.0872
1987	0.2476	7,328	0.4110	0.0861	1987	0.2547	7,417	0.4129	0.0861
1990	0.2491	7,795	0.4079	0.0816	1990	0.2562	7,890	0.4099	0.0817
1995	0.2383	8,804	0.4054	0.0783	1995	0.2449	8,911	0.4076	0.0783
2000	0.2319	9,984	0.3854	0.0751	2000	0.2383	10,106	0.3879	0.0752
2002	0.2375	10,518	0.3617	0.0737	2002	0.2440	10,646	0.3645	0.0738
平均	0.2416	8,423	0.4013	0.0804	平均	0.2484	8,525	0.4035	0.0805

으로 크게 늘어난 까닭으로 풀이된다.

다. 租稅政策 III

이 租稅政策은 勤勞所得稅를 引下하고 20年間 租稅收入의 現在價值를 不變하게 하는 수준으로 消費稅를 引上하는 경우이다. <表 13>에는 勤勞所得稅率을 1/4씩 단계적으로 引下하는 경우에 대한 稅率 등이 나타나 있는데 消費稅率은 租稅政策 II의 경우보다 높고 利子率과 消費增加率은 基準政策의 경우와 동일하나 租稅政策 I 및 II의 경우보다 낮다. <表 14>에는 네가지 引下率의 경우에 있어서 9個年度에 대한 家計貯蓄率 등이 나타나 있다.

먼저 家計貯蓄率은 基準政策과 租稅政策 I의 경우에 비해서는 모든 경우 증가하고 있으나 租稅政策 II의 경우에 비해서는 대부분의 경우 낮게 나타나고 있다. 家計貯蓄率의 20年平均水準은 α 의 네 값에 따라 23.81, 24.16, 24.50, 24.84%로 증가하며 勤勞所得稅를 完全非課稅하는 경우 20年平均 家計貯蓄率은 基準政策 및 租稅政策 I의 경우보다 각각 1.06배 및 1.02배 높게 나타나나 租稅政策 II에 비해서는 0.4% 정도 감소하고 있다. 全體家計의 厚生水準을 나타내는 家口當實質消費는 基準政策뿐 아니라 租稅政策 I 및 II의 경우에 비

해서도 증가하고 있다.

한편 Gini係數는 基準政策의 경우보다 증가하나 租稅政策 I 및 II의 경우보다는 감소하여 所得分配가 基準政策의 경우에 비해서는 악화되나 租稅政策 I 및 II의 경우에 비해서는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마지막으로 家計部門의 成長率은 基準政策의 경우보다 미미하게 증가하나 租稅政策 I 및 II의 경우에 비해서는 몇 경우를 제외하고 거의 동일한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이어서 <表 15>에는 租稅引下率에 대한 家計貯蓄率 등의 彈性値가 정리되어 있는데 租稅政策 II의 경우와 같이 家計貯蓄率의 彈性値가 가장 높고 成長率의 彈性値가 가장 낮다. 彈性値의 크기를 특히 租稅政策 I의 경우와 비교해 보면 家計貯蓄率의 경우는 약 2배, 實質消費의 경우는 4배 이상 높게 나타나고 있다.

마지막으로 <表 16>에는 이 租稅政策下에서 勤勞所得稅가 完全非課稅되는 경우 1983年 5個家口の 收支 및 資産內譯 등이 정리되어 있다. 먼저 消費支出은 25~45歲家口에서는 基準政策, 租稅政策 I 및 II의 경우에 비해 모두 증가하나 55, 65歲家口에서는 基準政策의 경우보다는 증가하나 다른 두 政策의 경우에 비해서는 모두 감소하고 있다. 한편 家計貯蓄率은 모든 家口에서 基準政策의 경우보다 증가하나 다른 두 政策에 비해서는 25歲家口에서는 낮고 다른 3家口에서는 모두 높게 나타나고 있다.

租稅負擔率은 25~35歲家口에서는 세 政策의 경우보다 모두 감소하나 45歲家口에서는 基準政策의 경우보다는 감소하고 다른 두 政策에 비해서는 增加하며 마지막 65歲家口에서는 租稅負擔率이 100%를 上廻하여 다른 세 政策의 경우보다 현저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⁴³⁾.

<表 15> 主要變數의 彈性値(租稅政策 III)

租稅引下率	家計貯蓄率	家口當實質消費	Gini係數	成長率
$\alpha=1/4$	-0.0604	-0.0245	-0.0400	-0.0010
1/2	-0.0599	-0.0248	-0.0318	-0.0012
3/4	-0.0593	-0.0247	-0.0260	-0.0013
1	-0.0587	-0.0246	-0.0215	-0.0012

43) 租稅負擔率의 이와 같은 양상은 勤勞所得稅가 完全非課稅되고 消費稅가 11.70%에서 19.93%로 1.7배 정도 引上됨에 따라 租稅負擔이 靑·壯年家計의 경우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반면 中·老年家計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크게 늘어나는 까닭으로 풀이된다.

〈表 16〉 代表家計의 收支 및 資産內課(租稅政策Ⅲ ; $\alpha=1$)

(단위 : 千원)

	25歲	35歲	45歲	55歲	65歲
I. 家計收支					
勤勞所得	4,096	7,604	9,461	10,634	0
利子所得	0	1,459	6,913	15,219	2,919
總所得	4,096	9,063	16,374	25,853	2,919
消費支出	3,348	5,075	7,693	11,660	17,673
消費稅	667	1,011	1,533	2,324	3,522
勤勞所得稅	0	0	0	0	0
利子所得稅	0	69	326	718	138
家計支出	4,015	6,155	9,552	14,702	21,333
貯蓄	80	2,908	6,822	11,152	-18,414
II. 家計資産					
物的資産	0	10,595	50,187	110,493	21,195
人的資産	71,441	87,379	72,469	10,634	0
總資産	71,441	97,974	122,656	121,127	21,195
III. 比率 및 比重					
貯蓄率	.0196	.3208	.4166	.4314	-6.3074
租稅負擔率	.1629	.1192	.1135	.1176	1.2536
租稅比重	1.000	1.000	1.000	1.000	1.000
消費稅	1.000	.9363	.8246	.7640	.9624
勤勞所得稅	0	0	0	0	0
利子所得稅	0	.0637	.1754	.2360	.0376
消費/資産	.0469	.0518	.0627	.0963	.8338

라. 租稅政策Ⅳ

이 租稅政策은 利子 및 勤勞所得稅를 引下하고 20年間 租稅收入의 現在價値를 不變하게 하는 수준으로 消費稅를 引上하는 경우이다.

〈表 17〉에는 利子 및 勤勞所得稅率을 1/4씩 단계적으로 引下하는 네가지 경우에 대한 稅率 등이 나타나 있는데 消費稅率은 租稅政策Ⅱ 및

Ⅲ의 경우보다 높고 利子率과 消費增加率은 基準政策과 租稅政策Ⅲ의 경우보다 높으나 租稅政策Ⅰ과 Ⅱ의 경우와는 동일하다. 다음 〈表 18〉에는 네가지 引下率의 경우 9個年度에 대한 家計貯蓄率 등이 나타나 있다.

家計貯蓄率은 基準政策은 물론 다른 세가지 租稅政策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증가하고 있다. 家計貯蓄率의 20年 平均수준은 네가지 α 값에

〈表 17〉 主要母數値의 變化(租稅政策Ⅳ)

租稅引下率	稅 率			利 子 率		消費增加率
	利子所得	勤勞所得	消 費	名 目	實 質	
$\alpha=1/4$	0.1256	0.0683	0.1472	0.1529	0.1196	0.0641
1/2	0.0838	0.0456	0.1774	0.1548	0.1214	0.0652
3/4	0.0419	0.0228	0.2077	0.1567	0.1232	0.0664
1	0	0	0.2381	0.1585	0.1250	0.0675

〈表 18〉 主要經濟變數의 變化(租稅政策Ⅳ)

	家計貯蓄率	家口當實質消費	Gini係數	成長率
A. $\alpha=1/4$ (千원)				
1983	0.2479	6,814	0.4059	0.0853
1984	0.2478	6,932	0.4076	0.0861
1985	0.2471	7,053	0.4098	0.0864
1986	0.2473	7,179	0.4108	0.0872
1987	0.2479	7,310	0.4111	0.0861
1990	0.2494	7,776	0.4081	0.0816
1995	0.2387	8,788	0.4052	0.0783
2000	0.2320	9,974	0.3857	0.0751
2002	0.2375	10,509	0.3623	0.0737
平均	0.2416	8,407	0.4015	0.0804
B. $\alpha=1/2$				
1983	0.2554	6,884	0.4114	0.0852
1984	0.2553	7,003	0.4129	0.0860
1985	0.2546	7,125	0.4150	0.0864
1986	0.2547	7,252	0.4159	0.0872
1987	0.2553	7,385	0.4162	0.0860
1990	0.2569	7,856	0.4133	0.0817
1995	0.2458	8,884	0.4105	0.0784
2000	0.2487	10,089	0.3913	0.0752
2002	0.2442	10,634	0.3682	0.0738
平均	0.2491	8,498	0.4068	0.0805
C. $\alpha=3/4$				
1983	0.2628	6,957	0.4158	0.0852
1984	0.2627	7,077	0.4172	0.0860
1985	0.2620	7,200	0.4192	0.0864
1986	0.2621	7,328	0.4202	0.0871
1987	0.2628	7,462	0.4205	0.0860
1990	0.2644	7,938	0.4174	0.0818
1995	0.2529	8,983	0.4151	0.0785
2000	0.2454	10,208	0.3962	0.0752
2002	0.2508	10,762	0.3731	0.0739
平均	0.2562	8,592	0.4112	0.0805
D. $\alpha=1$				
1983	0.2702	7,032	0.4200	0.0852
1984	0.2700	7,153	0.4214	0.0859
1985	0.2693	7,278	0.4234	0.0863
1986	0.2694	7,407	0.4243	0.0871
1987	0.2701	7,542	0.4246	0.0860
1990	0.2718	8,024	0.4216	0.0818
1995	0.2599	9,085	0.4194	0.0785
2000	0.2520	10,332	0.4005	0.0753
2002	0.2573	10,895	0.3775	0.0740
平均	0.2633	8,690	0.4155	0.0806

따라 24.16, 24.91, 25.62, 26.33%로 증가하여 특히 利子 및 勤勞所得稅가 完全非課稅되는 消費稅單一稅制(pure consumption tax system)의 경우 20年平均 家計貯蓄率は 基準政策의 경우보다 1.12倍, 租稅政策 I의 경우에 비해서는 1.09倍 정도 높게 나타나고 있다. 家口當 實質消費 역시 基準政策과 다른 세가지 租稅政策의 경우보다 증가하고 있다.

Gini係數도 基準政策 및 다른 세가지 租稅政策의 경우보다 증가하여 基準政策을 포함한 네가지 租稅政策의 경우 중 소득분배가 가장 악화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家計部門의 成長率은 20年平均水準에서 基準政策 및 다른 세 租稅政策의 경우보다 미미하게나마 증가하고 있다.

이어서 〈表 19〉에는 租稅引下率에 대한 家計貯蓄率 등의 彈性値가 요약되어 있는데 역시 家計貯蓄率의 彈性値가 가장 높고 成長率의 彈性値가 가장 낮다. 특히 家計貯蓄率의 彈性値는 租稅政策 I의 3倍 이상, 租稅政策 II 및 III의 2倍 정도 높고 家口當 實質消費 및 成長率의 彈性値도 다른 租稅政策의 경우보다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마지막으로 〈表 20〉에는 消費稅單一稅制의 경우에 대하여 1983年 5個家口의 收支 및 資產 內譯 등이 정리되어 있다. 먼저 消費支出은 25, 35歲家口에서는 基準政策 및 租稅政策 III의 경우보다 낮으나 나머지 3家口에서는 모두 基

〈表 19〉 主要變數의 彈性値(租稅政策Ⅳ)

租稅引下率	家計貯蓄率	家口當實質消費	Gini係數	成長率
$\alpha=1/4$	-0.1240	-0.0418	-0.0652	-0.0025
1/2	-0.1234	-0.0428	-0.0596	-0.0025
3/4	-0.1229	-0.0436	-0.0547	-0.0025
1	-0.1223	-0.0445	-0.0518	-0.0025

準政策 및 세 租稅政策의 경우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한편 家計貯蓄額 및 貯蓄率은 基準政策 및 다른 租稅政策보다 25~55歲의 4家口에서 모두 증가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租稅負擔率은 基準政策 및 租稅政策 I 과 II 에 비해서는 25~55歲의 4家口에서는 감소하고 65歲家口에서는 크게 증가하고 있다. 한편 租

稅政策 III 과 비교하면 25, 35, 65歲家口에서는 증가한 반면 45, 55歲家口에서는 감소하고 있다⁴⁴⁾.

마. 租稅政策 V

이 租稅政策은 消費稅 및 利子所得稅를 引下하는 대신 20年間 租稅收入의 現在價値를 不變

〈表 20〉 代表家計의 收支 및 資産內譯(租稅政策 V ; 消費稅單一稅制) (단위 : 千원)

	25歲	35歲	45歲	55歲	65歲
I. 家計收支					
勤勞所得	4,096	7,604	9,461	10,634	0
利子所得	0	1,736	7,638	16,513	3,314
總所得	4,096	9,340	17,099	27,147	3,314
消費支出	3,119	4,936	7,811	12,362	19,564
消費稅	743	1,175	1,860	2,944	4,659
勤勞所得稅	0	0	0	0	0
利子所得稅	0	0	0	0	0
家計支出	3,862	6,111	9,671	15,306	24,223
貯蓄	234	3,229	7,428	11,841	-20,908
II. 家計資産					
物的資産	0	12,687	55,814	120,669	24,222
人的資産	66,756	83,363	70,527	10,634	0
總資産	66,756	96,050	126,341	131,303	24,222
III. 比率 및 比重					
貯蓄率	.0572	.3457	.4344	.4362	-6.3074
租稅負擔率	.1813	.1258	.1088	.1084	1.4055
租稅比重	1.000	1.000	1.000	1.000	1.000
消費稅	1.000	1.000	1.000	1.000	1.000
勤勞所得稅	0	0	0	0	0
利子所得稅	0	0	0	0	0
消費/資産	.0467	.0514	.0618	.0941	.8077

〈表 21〉 主要母數値의 變化(租稅政策 V)

租稅引下率	稅 率			利 子 率		消費增加率
	利子所得	勤勞所得	消 費	名 目	實 質	
$\alpha=1/4$	0.1256	0.1320	0.0878	0.1529	0.1196	0.0641
1/2	0.0838	0.1723	0.0585	0.1548	0.1214	0.0652
3/4	0.0418	0.2119	0.0293	0.1567	0.1232	0.0664
1	0	0.2506	0	0.1585	0.1250	0.0675

44) 租稅負擔率의 이와 같은 변화양상은 勤勞 및 利子所得稅가 完全非課稅되고 消費稅단 11.70%에서 23.81%로 2배 정도 대폭 인상됨에 따라 조세부담이 老年家計의 경우 크게 증가한 반면 靑·壯·中年 家計에서는 상대적으로 크게 줄어든 까닭으로 풀이된다.

〈表 22〉 主要經濟變數의 變化(租稅政策 V)

	家計貯蓄率	家口當實質消費	Gini係數	成長率
A. $\alpha=1/4$ (千원)				
1983	0.2374	6,695	0.3993	0.0853
1984	0.2373	6,811	0.4009	0.0861
1985	0.2366	6,930	0.4032	0.0865
1986	0.2367	7,053	0.4043	0.0872
1987	0.2373	7,182	0.4047	0.0861
1990	0.2388	7,640	0.4018	0.0815
1995	0.2287	8,634	0.3986	0.0782
2000	0.2224	9,799	0.3791	0.0751
2002	0.2278	10,325	0.3557	0.0735
平均	0.2317	8,260	0.3949	0.0803
B. $\alpha=1/2$				
1983	0.2342	6,640	0.4017	0.0853
1984	0.2340	6,755	0.4033	0.0861
1985	0.2334	6,873	0.4056	0.0865
1986	0.2335	6,995	0.4066	0.0872
1987	0.2340	7,123	0.4067	0.0861
1990	0.2356	7,577	0.4035	0.0814
1995	0.2257	8,569	0.3997	0.0781
2000	0.2194	9,731	0.3803	0.0750
2002	0.2245	10,257	0.3573	0.0734
平均	0.2286	8,197	0.3965	0.0803
C. $\alpha=3/4$				
1983	0.2307	6,583	0.4033	0.0853
1984	0.2306	6,697	0.4048	0.0861
1985	0.2299	6,814	0.4070	0.0865
1986	0.2300	6,935	0.4079	0.0872
1987	0.2306	7,061	0.4081	0.0861
1990	0.2322	7,512	0.4052	0.0814
1995	0.2225	8,501	0.4011	0.0781
2000	0.2162	9,660	0.3817	0.0750
2002	0.2211	10,185	0.3587	0.0734
平均	0.2253	8,131	0.3980	0.0803
D. $\alpha=1$				
1983	0.2270	6,525	0.4053	0.0853
1984	0.2269	6,637	0.4068	0.0861
1985	0.2262	6,753	0.4089	0.0865
1986	0.2263	6,872	0.4098	0.0873
1987	0.2268	6,998	0.4098	0.0861
1990	0.2285	7,445	0.4066	0.0813
1995	0.2191	8,430	0.4021	0.0781
2000	0.2128	9,587	0.3832	0.0750
2002	0.2176	10,109	0.3604	0.0733
平均	0.2217	8,063	0.3995	0.0802

하게 하는 수준으로 勤勞所得稅를 引上하는 경우이다. 〈表 21〉에는 消費稅 및 利子所得稅를 1/4씩 단계적으로 引下하는 네 경우에 대한 稅率 등이 나타나 있는데 勤勞所得稅率은 利子所得稅 하나만을 引下하는 租稅政策 I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증가하며 특히 消費稅 및 利子所得稅를 完全非課稅하는 勤勞所得稅單一稅制(pure wage tax system)의 경우에는 租稅政策 I의 경우보다 1.9배 가량 높게 나타나고 있다. 한편 利子率 및 消費增加率은 基準政策 및 租稅政策 III의 경우보다 높고 나머지 租稅政策의 경우와는 동일한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이어서 〈表 22〉에는 네가지 引下率의 경우 9個年度에 대한 家計貯蓄率 등이 나타나 있는데 먼저 家計貯蓄率은 다른 네가지 租稅政策은 물론 基準政策의 경우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다. 家計貯蓄率의 20年平均値는 α 의 네 값에 따라 23.17, 22.86, 22.53, 22.17%로 감소하여 특히 勤勞所得稅單一稅制의 경우 20年平均 家計貯蓄率은 租稅政策 IV의 경우보다 15.8%, 基準政策의 경우보다 5.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全體家計의 厚生水準을 나타내는 家口當實質消費도 基準政策과 다른 租稅政策의 경우보다 감소하고 있다.

한편 Gini係數는 基準政策의 경우에 비해 $\alpha=1/4$ 인 경우를 제외하고 모두 높으나 다른 네 租稅政策의 경우보다는 낮게 나타나 所得分配가 基準政策에 비해서는 대체적으로 악화

〈表 23〉 主要變數의 彈性值(租稅政策 V)

租稅引下率	家計貯蓄率	家口當實質消費	Gini係數	成長率
$\alpha=1/4$	0.0493	0.0288	0.0010	0.0015
1/2	0.0512	0.0296	-0.0076	0.0015
3/4	0.0530	0.0303	-0.0100	0.0015
1	0.0549	0.0309	-0.0113	0.0015

되나 다른 네 租稅政策의 경우에 비해서는 개선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한편 家計部門의 成長率은 基準政策은 물론 다른 네 租稅政策의 경우보다 모두 낮게 나타나고 있다.

다음 <表 23>에는 租稅引下率에 대한 家計貯蓄率 등의 彈性值가 나타나 있는데 역시 家計貯蓄率의 彈性值가 가장 높고 成長率의 彈性值가 가장 낮다. 특히 家計貯蓄率의 彈性值는 다른 租稅政策의 경우와는 달리 陽의 符號를 갖고 絕對值의 크기에 있어서는 租稅政策Ⅳ의 경우에 비해 절반 정도 낮게 나타나고 있다.

마지막으로 <表 24>에는 勤勞所得稅單一稅制의 경우에 대하여 1983年 5個家口의 家計收支 및 資産內譯 등이 요약되어 있다. 먼저 消費

支出은 25~45歲의 세 家口에서 基準政策 및 네 租稅政策의 경우보다 모두 낮게 나타나고 있다. 한편 家計의 貯蓄額과 貯蓄率은 35~55歲家口에서는 基準政策 및 다른 네 租稅政策의 경우보다 낮고 25歲家口에서는 基準政策과 租稅政策Ⅲ의 경우보다 높은 반면 나머지 세 租稅政策의 경우보다는 낮게 나타나고 있다. 租稅負擔率은 25~45歲의 靑·壯年家口에서는 基準政策 및 다른 네 租稅政策보다 높고 55歲家口에서는 基準政策과 租稅政策Ⅲ의 경우보다 낮은 반면 다른 세 租稅政策의 경우에 비해서는 높게 나타나고 있다. 한편 마지막 65歲家口에서는 勤勞所得의 缺如로 인해 零의 租稅負擔이 나타난다⁴⁵⁾.

<表 24> 代表家計의 收支 및 資産內譯(租稅政策Ⅴ ; 勤勞所得稅單一稅制)

(단위 : 千원)

	25歲	35歲	45歲	55歲	65歲
I. 家計收支					
勤勞所得	4,096	7,604	9,461	10,634	0
利子所得	0	1,301	5,724	12,375	2,484
總所得	4,096	8,905	15,185	23,009	2,484
消費支出	2,894	4,580	7,248	11,470	18,152
消費稅	0	0	0	0	0
勤勞所得稅	1,026	1,906	2,371	2,665	0
利子所得稅	0	0	0	0	0
家計支出	3,920	6,486	9,619	14,135	18,152
貯蓄	176	2,420	5,566	8,874	-15,668
II. 家計資産					
物的資産	0	9,507	41,827	90,429	18,152
人的資産	50,027	62,473	52,853	7,969	0
總資産	50,027	71,980	94,680	98,398	18,152
III. 比率 및 比重					
貯蓄率	.0429	.2717	.3666	.3857	-6.3074
租稅負擔率	.2506	.2140	.1561	.1158	0
租稅比重	1.000	1.000	1.000	1.000	0
消費稅	0	0	0	0	0
勤勞所得稅	1.000	1.000	1.000	1.000	0
利子所得稅	0	0	0	0	0
消費/資産	.0578	.0636	.0766	.1166	1.000

45) 租稅負擔率의 이와 같은 변화양상은 消費稅와 利子所得稅가 完全非課稅되어 老年層家計의 조세부담이 零이 됨에 따라 다른 연령층 가계의 조세부담이 전반적으로 늘어나게 되고 勤勞所得稅가 9.10%에서 25.06%로 2.8배나 대폭 인상됨에 따라 靑·壯年層家計의 조세부담이 상대적으로 증가한 까닭으로 풀이된다.

2. 構造的租稅政策의 政策效果 順位

이제까지 살펴본 租稅政策「시뮬레이션」결과를 綜合하는 의미에서 위의 다섯가지 構造的 租稅政策中에서 어느 정책이 政府의 여러가지 政策目標, 즉 家計貯蓄의 增大, 社會厚生의 增進 혹은 經濟的效率의 提高, 所得分配의 改善 및 經濟成長의 提高 등을 달성함에 있어 보다 더 효과적인가 하는 여러가지 構造的 租稅政策間의 順位를 <表 25>에 要約하였다⁴⁶⁾.

먼저 家計貯蓄增大의 측면에서는 利子 및 勤勞所得稅를 引下하고 消費稅를 引上하는 租稅政策Ⅳ가 가장 효과적이며 消費稅 및 利子所得稅를 引下하고 勤勞所得稅를 引上하는 租稅政策Ⅴ가 가장 非效果的으로서 基準政策의 경우보다 오히려 家計貯蓄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 家計貯蓄을 增大시킴에 있어서 비교적 효과적인 租稅政策Ⅱ,Ⅲ,Ⅳ는 消費稅를 引上하는 점에서 共通의인데 勤勞所得稅를 引下하는 것보다 利子所得稅를 引下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며 이들 두 租稅를 동시에 引下

<表 25> 構造的 租稅政策의 政策效果 順位

政策目標	租 稅 政 策					
	基準	I	II	III	IV	V
家計貯蓄增大	5	4	2	3	1	6
社會厚生增進	5	4	3	2	1	6
所得分配改善	1	4	5	3	6	2
經濟成長提高	5	4	3	2	1	6

46) 이 表의 政策效果 順位는 <表 7>, <表 11>, <表 15>, <表 19> 및 <表 23>에 나타난 여러 彈性值들의 비교에 근거한 것이다.

47) 本研究에서 社會厚生增大와 經濟的 效率提高는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는데 이는 Pareto最適條件의 하나로서 소비자 측면에서 개개 소비자의 효용이 주어진 예산 제약하에서 極大化될 때 社會의 效率의 分配이 이루어지는 사실에 기초한 것이다.

48) 本研究에서처럼 一生週期模型을 이용하는 「시뮬레이션」分析에서는 도출된 結論이 基本模型의 여러가지

하게 되면 보다 높은 貯蓄增大效果가 나타나게 됨을 알 수 있다.

다음 社會厚生增大 혹은 經濟的 效率提高의⁴⁷⁾ 측면에서는 租稅政策Ⅱ와 Ⅲ의 경우를 제외하고 家計貯蓄增大의 측면과 유사한 順位가 나타나고 있다. 즉 租稅政策Ⅳ가 역시 社會厚生을 증대시킴에 있어서도 가장 효과적이며 租稅政策Ⅴ가 가장 非效果的으로서 基準政策의 경우보다 오히려 社會厚生水準 혹은 經濟的 效率을 低下시키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 租稅政策Ⅱ와 Ⅲ의 順位는 家計貯蓄增大의 경우와 달리 順位가 바뀌고 있는데 消費稅를 引上하는 경우 利子所得稅를 引下하는 것이 家計貯蓄增大을 위해서는 보다 효과적이거나 社會厚生增進 및 經濟的 效率提高를 위해서는 勤勞所得稅를 引下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인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所得分配改善의 측면에서는 基準政策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며 家計貯蓄增大과 社會厚生增進의 측면에서 가장 효과적이었던 租稅政策Ⅳ가 가장 非效果的인 政策으로 나타난다. 한편 家計貯蓄增大과 社會厚生增進의 측면에서 가장 非效果的이었던 租稅政策Ⅴ는 基準政策 다음가는 효과적인 정책으로 부각되고 있다. 한편 租稅政策Ⅱ와 Ⅲ을 비교해보면 消費稅를 引上하는 경우 勤勞所得稅를 引下하는 것이 利子所得稅를 引下하는 경우보다 오히려 所得分配가 개선되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家計部門의 成長提高側面에서는 租稅政策Ⅳ가 비교적 미미한 차이에서이긴 하나 가장 효과적이며 租稅政策Ⅴ의 경우가 가장 非效果的으로서 基準政策의 경우보다 오히려 家計部門의 成長을 鈍化시키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⁴⁸⁾.

V. 要約 및 結論

이제 <表 25>에 제시된 내용을 중심으로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本研究에서 고려한 여섯가지 構造的 租稅政策 중에서 利子 및 勤勞所得稅를 引下하고 20年間 租稅收入의 現在價値를 不變하게 하는 수준으로⁴⁹⁾ 消費稅를 引上하는 租稅政策이 家計貯蓄增大뿐만 아니라 社會厚生增進 혹은 經濟的 效率提高 및 經濟成長提高의 政策目標을 달성함에 있어서는 가장 효과적이나 所得分配改善의 측면에서는 가장 非效果的인 政策이다.

둘째, 이와 대조적으로 消費稅와 利子所得

母數를 특히 生涯效用函數의 母數인 代替彈性係數 γ 와 時間選好率 ρ 의 값이 변화할 경우에도 타당한 것인가 하는 普遍性的의 문제가 대두된다. 李啓植(1985 B)에서는 이와 같은 普遍性分析(sensitivity analysis)으로서 (γ, ρ) 의 값이 基本模型의 (1.5, 0.02)에서 (1.0, 0.03) 및 (2.0, 0.01)로 변화하는 두 경우에 대한 「시뮬레이션」결과를 비교·분석하고 있는데 세 경우 중에서 $\gamma=1.5$ 인 基本模型의 경우에 經濟變數의 擬制值(simulated value)가 비교적 實際值(actual value)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나 <表 25>가 그런데로 보다 현실적인 결과를 제시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 49) 이하의 要約內容에서도 이와 같은 租稅收入不變의 기준이 항상 前提된다.
- 50) 利子所得稅引下는 貯蓄率이 높은 高所得家口에게 상대적으로 많은 혜택을 주는 까닭에 勤勞所得稅引下의 경우보다 所得分配가 더 악화되며 利子 및 勤勞所得稅를 동시에 引下하면 특히 租稅收入을 不變으로 유지하기 위한 大幅의인 消費稅의 引上으로 인해 所得分配가 더욱 악화된다.
- 51) 여기서 제기될 수 있는 질문은 家計貯蓄增大, 社會厚生增進, 所得分配改善, 經濟成長提高 등 여러 政策目標에 대한 政策效果를 종합적으로 고찰해 볼 때 과연 어느 租稅政策이 가장 소망스러운가 하는 것인데 이에 대한 판단은 여러가지 다른 規範的인 요소, 예를 들어 어느 政策目標가 보다 중요한 비중을 갖는가에 크게 좌우될 것으로 사료되어 本稿에서는 이에 대한 논의를 留保하고자 한다.

稅를 引下하고 勤勞所得稅를 引上하는 租稅政策은 所得分配改善의 政策目標을 달성함에 있어서는 既存(status quo)政策에 버금가는 효과적인 政策이나 家計貯蓄增大나 社會厚生增進 및 經濟成長提高의 측면에서는 既存政策은 물론 다른 租稅政策에 비해서도 非效果的인 정책이다.

세째, 利子所得稅를 引下할 경우 消費稅를 引上하는 政策이 勤勞所得稅를 引上하는 政策에 비해 家計貯蓄增大는 물론 社會厚生增進, 經濟成長提高의 측면에서는 보다 효과적이나 所得分配改善의 측면에서는 보다 非效果的인 政策이다.

네째, 消費稅를 引上할 경우 ① 利子所得稅를 引下하는 政策이 勤勞所得稅를 引下하는 政策보다 家計貯蓄增大의 측면에서는 더 효과적이고 利子 및 勤勞所得稅를 동시에 引下하는 政策을 취하게 되면 보다 높은 家計貯蓄增大 효과가 나타나며 ② 社會厚生增進 및 經濟成長提高의 측면에서는 勤勞所得稅引下政策이 오히려 利子所得稅引下政策보다 효과적이고 利子 및 勤勞所得稅를 동시에 引下하는 政策은 이들 두 政策보다 더욱 效果的인 政策이며 ③ 所得分配改善의 측면에서도 勤勞所得稅 引下政策이 利子所得稅引下政策보다 더 效果的이나 勤勞 및 利子所得稅를 동시에 引下하는 政策은 다른 두 政策에 비해 非效果的인 政策이다⁵⁰⁾.

다섯째, 勤勞所得稅를 引上할 경우 利子所得稅만을 引下하는 政策이 利子所得稅와 消費稅를 동시에 引下하는 政策보다 家計貯蓄增大는 물론 社會厚生增進 및 經濟成長提高의 측면에서는 더 효과적인 정책이나 所得分配改善의 측면에서는 非效果的인 政策이다⁵¹⁾.

여섯째, 대체적으로 家計貯蓄増大의 측면에서 效果的인 租稅政策은 社會厚生増進 혹은 經濟的效率提高 및 經濟成長提高의 측면에서도 效果的인 政策이나 所得分配改善의 측면에서는 비효과적인 政策으로 나타나 家計貯蓄을 증대시키는 租稅政策을 취할 경우 所得分配面에서는 어느 정도 社會的費用의 감수가 불가피함을 의미한다⁵²⁾.

일곱째, 「Denison(1958)의 法則」으로 대표되는 傳統的인 견해는 利子所得稅에 의해 영향을 받는 利子率에 대한 貯蓄의 彈力性이 거의 零에 가깝다는 實證分析의 결과를 바탕으로 租稅政策의 家計貯蓄増大效果가 미미하다는 主張을 내세우고 있는데 本研究의 分析結果에서는 利子所得稅 調整에 따른 相對價格效果는 물론 負擔分布效果등에 의해 租稅政策이 家計貯蓄에 광범위하고 강력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⁵³⁾.

本研究의 核心的인 부분인 「시뮬레이션」 분

52) 富裕한 家計가 상대적으로 貯蓄率이 높기 때문에 貧益貧富益富의 현상이 深化될수록 전체적인 家計貯蓄率은 증가될 것이라는 다소 斷片的인 관찰에 근거하여 家計貯蓄増大와 所得分配改善의 政策目標은 서로 相衡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으나 <表 25>에 나타난 결과를 좀더 자세히 살펴보면 두 政策目標間에 單調的(monotonic)인 相衡關係가 항상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 나타난다. 즉 政策 I, III, 그리고 政策 V, 基準政策을 각각 비교해 보면 政策 III이 I보다 그리고 基準政策이 政策 V보다 家計貯蓄増大의 측면에서는 물론 所得分配改善의 측면에서도 더 효과적인 정책으로 나타나고 있다.

53) 이 문제에 대해서는 租稅政策의 相對價格效果 및 負擔分布效果의 개념을 포함하여 본연구의 서론에서 언급한 바 있다. 특히 負擔分布效果의 중요성은 政策 I, II, IV, V의 경우와 政策 III, 基準政策의 경우 利子率이 각각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家計貯蓄率이 相異하게 나타나는 사실에서 찾아볼 수 있다. 특히 基準政策과 政策 III의 경우에는 政策 I, V의 경우보다 利子率이 낮으나 家計貯蓄率은 오히려 높게 나타나고 있다.

54) Auerbach-Kotlikoff(1983)는 이와 같은 時差的 및 豫示的 租稅政策에 의해서 家計貯蓄과 社會厚生水準이 크게 變化되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석은 41期間에 걸친 一生週期模型과 賃金 및 人口 등에 대한 實際 및 推計資料를 이용하여 여러 가지 構造的 租稅政策이 家計貯蓄率뿐만 아니라 社會厚生 혹은 經濟的效率, 所得分配 및 家計部門의 成長에 미치는 효과를 종합적으로 고찰함으로써 우리 經濟의 主要當面課題인 家計貯蓄増大의 政策目標을 보다 넓은 시각에서 그리고 보다 效果的으로 推進하고 달성에 있어서 중요하고 基礎的인 政策資料를 제시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本研究의 「시뮬레이션」模型은 分析의 便宜와 精密을 주된 이유로 同質의 選好(homogeneous preference), 將來에 대한 완전한 眼目(perfect foresight) 등 通常의이긴 하나 非現實的인 假定들을 이용하고 있는 점에서 미흡하다고 판단되며 이러한 假定들의 補完을 포함하여 本研究가 租稅政策과 家計貯蓄의 문제를 보다 綿密하게 분석할 수 있는 연구로 발전될 수 있는 몇가지 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本研究의 「시뮬레이션」模型에서는 1983년부터 2002년까지 20年 全期間에 걸쳐 一定한 水準으로 租稅構造를 調整하는 一般的 租稅政策의 경우를 분석하였는데 本模型의 체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예를 들어 20年間을 5年, 15年の 前後半으로 나누어 前半에 租稅를 引下하고 後半에 租稅를 引上하는 時差的租稅政策이나 앞으로 5年 혹은 10年後에 租稅構造를 改編하겠다는 豫示的 租稅政策이 家計貯蓄 및 다른 經濟變數들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게 되면 보다 有益한 政策資料가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⁵⁴⁾.

2) 本研究에서는 勤勞 및 利子所得稅, 消費稅 등 세 租稅가 比例的인 경우만을 분석하였는데 특히 勤勞所得稅의 경우에는 累進的인 稅

率構造를 고려하고 Feldstein-Feenberg(1983)의 연구와 같이 實質收益率을 동일하게 유지하는 一定額限度의 貯蓄控除制度(savings deduction plan)와 利子所得排除制度(interest exclusion plan)가 家計貯蓄에 미치는 효과를 比較分析하게 되면 보다 具體적이고 現實적인 政策資料가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⁵⁵⁾.

3) 本研究에서는 經濟主體中 家計部門만이 고려되고 있는데 政府 및 企業部門을 함께 고려하게 되면 家計貯蓄과 政府 및 企業貯蓄과의 관계, 政府의 財政赤字 및 公·私的年金制度가 家計貯蓄에 미치는 효과, 公金利水準 등 非租稅政策變數의 조정이 家計貯蓄에 미치는 효과 등을 보다 광범위하게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⁵⁶⁾.

우리 經濟가 外債와 國際收支赤字를 감축하고 物價安定의 바탕 위에서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國民貯蓄 그중에서도 특히 家計貯蓄이 劃期的으로 증대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대부분 사람들의 見解가 일치하고 또 이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의해 異口同聲으로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정작 家計貯蓄을 어떻게 增大시킬 것인가, 보다 구체적으로 家計貯蓄增大를 위해서 어떠한 金融政策 혹은 租稅政策을 취해야 하며 또 그러한 政策들의 政策效果는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 하는 문제에

55) 여기서 貯蓄控除制度는 課稅對象所得에서 年金 등 특별목적을 위한 一定限度의 貯蓄額을 控除해 주는 것을 의미하며 利子所得排除制度는 課稅對象所得에서 一定限度의 利子所得을 控除해 주는 것을 의미한다. 이 두 制度는 일견 매우 유사한 내용이나 個個家計의 저축형태에 미치는 효과면에 있어서는 크게 차이나는 결과가 Feldstein-Feenberg(1983)의 연구에서 제시되고 있다.

56) 本研究의 「시물레이션」 모델에서 非租稅政策變數라 할 수 있는 公金利水準, 인플레이션, 賃金上昇率 등의 변화가 家計貯蓄 등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분석결과는 李啓植(1985B)의 附錄④ 참조.

대해서는 組織적이고 體系적인 研究와 分析이 거의 全無한 실정이다. 미흡하나마 本研究가 租稅政策의 측면에서 이와 같은 空白의 一角이나마 充填할 수 있다면 거기에 本研究의 진정한 意義가 있다고 하겠다.

〔附 錄〕

「시물레이션」分析의 資料解說

다음 資料들은 人口, 賃金上昇率, 時間選好率, 代替彈力性係數의 경우를 除外하고 모두 1983年度에 대한 것이다.

1. 賃 金

勞動部, 『職種別 賃金實態調査報告』(1983, p. 1389)에서 全產業에 대한 25~55歲 사이 大卒以上 男子의 年間 給與額(=月給與額×12+年間特別給與額). 여기서 특히 大卒以上の 賃金을 사용한 것은 우리 社會에서 高等教育이 大衆化되는 趨勢를 考慮한 까닭이다. 參考로 經濟企劃院, 『韓國의 社會指標』(1983, p. 139)에 의하면 1982년의 경우, 家口主의 아들에 대한 期待教育水準을 大卒以上으로 答한 家口가 全體家口의 98.3%로 나타나고 있다.

2. 人 口

人口保健研究院(1983)이 推計한 資料로서 1983年에서 2002년까지 25~65세 男子의 年齡別 人口.

3. 基準政策의 母數值

① 利子所得稅率(τ^k)=0.1675 : 公金融貯蓄의 利子에 賦課되는 利子所得稅(10%), 教育稅(5%), 防衛稅(1%) 및 住民稅(0.75%)의 合.

② 勤勞所得稅率(τ^L)=0.091 : 財務部(內部資料), 『總括制度 研究分科委員會 參考資料』(1984, p.164)에서 勤勞所得稅 算出稅額을 課稅標準으로 なる 勤勞所得稅의 實効稅率.

③ 消費稅率(τ^c)=0.117 : 財務部(內部資料) 『消費稅制 分科委員會 參考資料(I)』(1984, p.15)에서 間接稅總額을 民間消費支出로 なる 消費稅負擔率.

④ 公金融利子率(r^d)=0.08 : 1年 以上 定期預金の 年利子率.

⑤ 私金融利子率(r^b)=0.2577 : 韓國銀行 內部資料로서 月平均私債利子率을 年率로 換算한 값.

⑥ 私金融 比重(λ)=0.442 : 國民銀行, 『家計金融利用實態報告書』(1983, p.29)에서 都市家計의 金融貯蓄中 私債, 契 등 私金融貯蓄이 차지하는 比重.

⑦ 인플레이션率(π)=0.0298 : 經濟企劃院, 『主要經濟指標』(1985, p.6)에서 GNP 「디플레이

터」의 上昇率.

⑧ 賃金上昇率(δ)=0.05 : 韓國銀行 『主要經濟指標』(1985)에서 製造業常備從業員의 月平均給與額의 上昇率은 12.2%이나 이 數值를 使用한 「시뮬레이션」結果에서는 거의 모든 年齡層에서 負의 貯蓄이 나타나 이 數值보다 낮은 0.05로 假定하였다.

⑨ 時間選好率(ρ)=0.02 : 이에 대한 推定資料는 存在하지 않으며 大部分의 研究에서는 -0.03~0.03의 數值를 사용하고 있다. Evans(1983)는 -0.03, 0.0 및 0.03, Auerbach-Kotlikoff(1983)는 0.02, Summers(1981)는 0.03의 數值를 사용하고 있다. 이 時間選好率의 크기와 推定에 관한 推論的(inferential)인 分析에 대해서는 Olson-Bailey(1981) 참조.

⑩ 代替彈力性係數(γ)=1.5 : 우리나라의 경우 이에 대한 推定資料는 존재하지 않으며 美國의 경우 여러 實證研究들에 의해서 이 係數가 推定되고 있다. 예를 들어 Weber(1970, 1975)의 첫번째 研究는 2.44~7.69, 둘째 研究는 1.33~1.79, Friend-Blume(1975)은 2.0 이상, Grossman-Shiller(1981)는 4.0以上, Hall(1981)은 10.0以上, Summers(1982)는 2.22~25.0의 推定值를 提示하고 있다.

▷ 參 考 文 獻 ◁

郭泰元, 「開發戰略과 投資誘因政策; 一般均衡模型을 이용한 「시뮬레이션」分析」, 『韓國開發研究』, 第5卷第4號, 1983, pp. 83~104.

朴烜求·朴世逸, 『韓國의 賃金構造』, 韓國開發

研究院, 1984.

李啓植, 「家計貯蓄動向과 誘因制度의 改編方向」, 『KDI分期別 經濟展望』, 第4卷第1號, 1985A, pp. 58~87.

_____, 「家計貯蓄과 構造의 租稅政策」,

- mimeo., 1985B.
- 朱鶴中・尹珠賢, 「1982年 階層別 所得分配의 推計와 變動要因」, 『韓國開發研究』, 第6卷第1號, 1984, pp. 2~18.
- 韓國人口保健研究院, 『2000年을 向한 國家長期 發展構想—人口部門』, 1983. 12.
- Ando, A. and F. Modigliani, "The 'Life Cycle' Hypothesis of Saving: Aggregate Implications and Tests," *American Economic Review*, Vol. 53, March 1963, pp. 55~84.
- Auerbach, A.J. and L.J. Kotlikoff, "National Savings, Economic Welfare, and the Structure of Taxation," M. Feldstein(ed). *Behavioral Simulation Methods in Tax Policy Analysis*,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3, pp. 459~498.
- _____, and J. Skinner, "The Efficiency Gains from Dynamic Tax Reform," *International Economic Review*, Vol. 24, No. 2, February 1983, pp. 81~100.
- Boskin, M.J., "Taxation, Saving, and the Rate of Interest,"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Vol. 86, No. 2, April 1978, pp. 3~27.
- David, P.A. and J.L. Scadding, "Private Savings: Ultrarationality, Aggregation, and 'Denison's Law,'"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Vol. 82, No. 2, April 1974, pp. 225~249.
- Denison, E.F., "A Note on Private Saving,"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Vol. 40, August 1958, pp. 261~267.
- Evans, O.J., "Tax Policy, the Interest Elasticity of Saving, and Capital Accumulation: Numerical Analysis of Theoretical Models," *American Economic Review*, Vol. 73, No. 3, June 1983, pp. 398~410.
- Feldstein, M. and D.R. Feenberg, "Alternative Tax Rules and Personal Saving Incentives: Microeconomic Data and Behavioral Simulations," M. Feldstein(ed), *Behavioral Simulation Methods in Tax Policy Analysis*,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3, pp. 173~210.
- Friend, I. and M. Blume, "The Demand for Risky Assets," *American Economic Review*, Vol. 65, December 1975, pp. 900~922.
- Grossman, S. and R. Shiller, "The Determinants of the Variability of Stock Prices," *American Economic Review Proceedings*, Vol. 71, May 1981, pp. 222~227.
- Hall, R.E., "Intertemporal Substitution in Consumption," *NBER Working Paper*, No. 720, July 1981.
- Howrey, P. and S. Hymans, "The Measurement and Determination of Loanable-Funds Saving," *Brookings Papers on Economic Activity*, 1978, pp. 655~685.
- Jorgenson, D.W. and D.T. Slesnick, "Money Metric Social Welfare," *MIT Energy Laboratory Discussion Paper*, No. 27, Cambridge, Mass., 1982.
- King, M.A., "Savings and Taxation," G.A. Hughes and G.M. Heal(eds.) *Public Policy and the Tax System*, George Allen and Unwin, London, 1980.
- Kotlikoff, L.J., "Taxation and Savings: A Neoclassical Perspective," *Journal of Economic Literature*, Vol. 22, No. 4, December 1984, pp. 1576~1629.
- _____, and L.H. Summers, "The Role of Intergenerational Transfers in Aggregate Capital Accumulation,"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Vol. 89, August 1981, pp. 706~732.
- Lee, K.S., "Pareto Optimal Redistribution: A Public Good Approach," *KDI Working paper*, 8303, May 1983.
- Moore, G., "Taxes, Inflation, and Capital Formation," J. Enzler et al(eds.), *Public Policy and Capital Formation*, Washing-

- ton: Board of Governors of FRS, 1981, pp. 303~326.
- Olson, M. and M.J. Bailey, "Positive Time Preference,"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Vol. 89, No. 1, February 1981, pp. 1~25.
- Summers, L.H., "Capital Taxation and Capital Accumulation in a Life Cycle Growth Model," *American Economic Review*, Vol. 71, September 1981, pp. 533~544.
- _____, "Tax Policy, the Rate of Return, and Savings," *NBER Working Paper*, No. 995, 1982.
- Weber, W., "The Effect of Interest Rates on Aggregate Consumption," *American Economic Review*, Vol. 60, September 1970, pp. 591~600.
- White, B.B., "Empirical Tests of the Life Cycle Hypothesis," *American Economic Review*, Vol. 68, September 1978, pp. 547~560.
- Wright, C., "Saving and the Rate of Interest," A. C. Harberger and M.J. Bailey(eds.), *The Taxation of Income from Capital*, The Brookings Institution, 1969, pp. 275~300.